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제55호 【루계 제24833호】 주체104(2015)년 2월 24일 (화요일)

사 설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총공격전의 승리를 앞당기자

과학전선이 활력에 넘쳐 들끓고있다.

조국해방 일흔돐과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에 즈음하여 발표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는 드높은 신심과 열의에 넘쳐 약동하는 과학전선에 더욱 거세찬 투쟁의 불을 지펴주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백두의 넋과 기상을 안고 사상과 총대,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사회주의 내 조국의 존엄과 부강번영을 위한 총공격전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여야 합니다.》

과학기술의 힘으로 모든 부문을 빨리 발전시키고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이다.

이번 공동구호에도 제시되여있는것처럼 과학기술은 사회주의건설의 기관차이다. 과학기술이 확고히 앞서나가야 사회주의경제강국, 문명국건설에서 전환을 이룩할수 있다.

오늘의 정세는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인 과학전선이 강성국가건설의 앞장에서 모든 전선, 모든 부문을 힘차게 이끌어가는 기관차가 될것을 더욱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공동구호에 밝혀진바와 같이 오늘날 과학연구사업은 제국주의와의 첨예한 대결전이다.

우리 인민의 생명인 사회주의제도를 붕괴시킬 야망을 로골적으로 드러낸 불구대천의 원쑤 미제를 비롯한 적대세력의 반공화국적대시책동은 지금 극도에 달하였다. 우리가 잘살고 부강해지는것을 바라지 않는 적들은 갖은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것에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를 실현하는데 쓸 첨단제품 하나를 만들자고 하여도 남들보다 엄청나게 막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안되게 가로막고있으며 지어 우리 아이들의 밝은 웃음까지 빼앗으려고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다.

비열하고 악랄하고 끈질기게 감행되고있는 적들의 제재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앞길에는 헤아릴수 없이 많은 애로와 난관이 가로놓이고있다.

그러나 그 무엇으로써도 승리에로 향한 우리의 전진을 멈출수도 늦출수도 없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더욱 벼리여진 사상의 위력, 위대한 선군령장의 손길아래 무적필승으로 다져진 총대의 위력과 함께 가장 열렬하고 숭고한 사랑과 믿음과 정에 떠받들려 미래를 앞당기며 약동하고있는 주체과학기술의 위력이 우리에게 있다.

세기를 이어오는 제국주의자들과 그 추종세력의 극악한 제재와 봉쇄속에서 우리의 두뇌와 기술로 우주를 정복하고 핵기술을 틀어쥔 자랑찬 승리의 력사와 전통, 우리 식으로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를 실현하고 우리의 손으로 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수많이 일떠세운 훌륭한 경험들은 과학전선이 앞장에서 내달릴 때 오늘의 역경도 순경으로 전환시킬수 있으며 우리를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는 적대세력들에게 무자비한 철추를 내릴수 있다는것을 실증하고있다.

과학전선에서부터 적들을 압도하여 디디고 올라서야 한다. 바로 여기에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륭성번영이 있으며 우리를 정치적으로 말살하고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며 군사적으로 압살하려는 그 어떤 악랄한 책동도 짓뭉개버리고 적들과의 모든 대결에서 언제나 주도권을 틀어쥐고 승리를 이룩할수 있는 확고한 길이 있다.

과학기술을 확고히 앞세우고 생명으로 틀어쥐는것은 현시대의 초미의 요구이다.

지식에 기초하여 지식을 추동력으로 급속히 발전하고있는 오늘의 지식경제시대에는 어느 부문, 어느 단위에서나 과학기술을 홀시하고 놓치면 한걸음도 전진할수 없으며 제기되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단 한가지도 똑바로 풀어나갈수 없다.

우리 식으로 현대화, 정보화를 실현하자고 하여도 그렇고 농사를 잘 짓자고 하여도 반드시 모든 사업에 과학기술을 확고히 앞세워야 하며 교육과 체육, 보건을 발전시키고 건축과 원예, 양어와 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패권을 쥐자고 하여도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맛있는 영양식료품과 질좋은 우리의 놀이감과 학용품을 안겨주자고 하여도 과학기술에 철저히 의거하여야 한다.

과학기술로 흥하고 과학기술로 앞서나가고있는 많은 단위들의 귀중한 성과들을 직접 목격하면서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과학기술을 틀어쥐면 반드시 승리하고 과학기술을 놓치면 어쩔수없이 뒤떨어지고 패하게 된다는 진리를 폐부로 절감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과학기술부문의 과업을 그처럼 중요하게 강조하신데는 바로 이런 심오한 뜻이 담겨져있다.

우리 당은 올해에 과학기술로 만난을 박차고 승리를 이룩함으로써 조국해방 일흔돐과 당창건 일흔돐을 조국청사에 일찌기 없었던 혁명적대경사로 들썩하게 맞이할것을 결심하였으며 이번 공동구호에서 과학전선이 앞장에서 사회주의승리의 포성을 울릴것을 열렬히 호소하였다.

전당, 전국, 전민이 산악같이 떨쳐나 과학기술의 힘으로 생산하고 건설하고 혁신하여 뜻깊은 올해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제일 크게, 제일 떳있게 승리하는 해로 조국청사에 길이 빛내이기 위하여 총궐기, 총돌격해나서자.

과학연구부문에서 최첨단돌파전의 봉화를 계속 높이 추켜들고나가야 한다.

과학전선이 끓어야 모든 부문이 기적과 혁신으로 약동하며 들끓는다.

모든 과학자, 기술자들은 과학전선의 기수, 전초병이라는 시대적사명감과 본분을 깊이 자각하고 당과 수령이 바라고 조국과 인민이 고대하는 가치있는 연구결과들을 많이 내놓음으로써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과학기술로 담보하고 실천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올해에 우리 당이 중요하게 내세우고있는 당면하고 절박한 문제를 풀기 위한 주요전구들에 과학연구사업의 화력을 집중하여야 한다.

특히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비롯하여 인민생활향상에서 제기되는 문제들과 에네르기문제, 산림복구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푸는데 올해 과학탐구, 기술발전의 주타격방향을 정하고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 전진과 비약의 돌파구를 열어제껴야 한다.

이 땅에 태를 묻고 어머니당의 품속에서 지혜와 재능과 슬기를 키우며 성장한 과학자, 기술자라면 조국이 그토록 안타깝게 해결을 기다리고 당이 절절하게 바라는 이러한 긴절한 문제들을 푸는데 조금이라도 이바지할수 있는 연구성과를 단 한가지라도 내놓아야 한다.

농업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누구보다 높은 실적을 내야 한다.

사회주의협동벌마다에서는 지금 과학농사의 열풍이 전례없이 세차게 일고있으며 과학기술의 덕을 단단히 보고있다.

전국적인 농작물생육예보체계의 확립, 벼모판종합영양제와 강냉이종자피복제, 나노살균제의 도입 등 의의가 큰 연구성과들이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호평속에 나라의 농업생산에 전면적으로 도입되고있다. 지난해 논벼농사에서만 보아도 모기르기, 모내기방법이 완전히 개선되여 2013년에 비해 전국적으로 1만 7,000여t의 종자가 절약되였으며 정보당 종자생산량이 늘어나고 소식재배방법 등의 도입으로 종자소요량이 줄어들어 1만 8,000여정보의 채종면적이 일반생산면적으로 전환되였다.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착시켜 100가지 농사일을 과학기술공정으로 전환시키고 앞선 영농방법과 영농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지난해에 정보당 10t이상의 알곡을 생산한 사리원시 미곡, 룡천군 신암, 재령군 삼지강협동농장들과 최고수확년도보다 7,000여t의 알곡을 더 생산한 배천군, 산간지대농사에서 장훈을 부른 대관군, 동해지구의 북변땅에서 최고수확년도 수준을 돌파한 함경북도를 비롯하여 전국각지의 농장들과 도, 시, 군들에서는 뜻깊은 올해에도 농사를 더 잘 지을수 있는 가치있는 연구성과들을 안고 과학자, 기술자들이 포전으로 나오기를 기다리고있다.

농업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피타게 사색하고 탐구하여 농민들이 바라고 어디서나 쉽게 받아들일수 있는 더 좋은 종자와 비료, 농약, 보다 실리가 큰 새로운 영농방법과 영농기술을 내놓아야 한다.

지금 제일 당면하고 긴절하게 요구되는것은 린, 카리비료문제를 푸는것이다. 쓸모없이 내버려두던 저품위광석과 세멘트생산공정에서 나오는 부산물로 효능높은 카리규소비료를 생산하고있는 옥류관의 기술자들과 일군들처럼 밥을 먹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일네일을 가리지 말고 농업생산에 이바지하는 과학기술적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먹는 문제해결을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전투장을 직접 타고앉아 물절약형농법이 요구되면 농민들과 함께 무릎을 마주하고 그 방도를 찾아내고 축산과 수산, 양어와 버섯, 온실남새생산과 관련한 기술이 요구되면 발벗고나서 열백밤을 패서라도 기어이 탐구해내는 열정적인 실천가, 실력가가 되여야 한다.

경공업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찬눈길, 찬바람을 헤치시며 경공업공장들을 끊임없이 찾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의도를 뼈속깊이 새기고 경공업의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우리 인민들에게 더 좋고 더 많은 인민소비품이 차례지게 하는데 이바지하는 실질적인 연구성과를 내놓아야 한다.

과학자, 기술자들이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문제는 에네르기문제이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순환비등층연소기술, 무중유착화기술, 새로운 분쇄기용강뽈, 석탄연소첨가제를 비롯하여 화력발전소들에서 석탄과 중유소비를 극력 줄이고 전력생산을 최대한 늘이는데 이바지할수 있는 연구성과들을 적극적으로 확대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책임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전력계통관리를 과학화하고 에네르기절약형전기설비들을 연구도입하여 전력의 질과 효률을 높이며 자연에네르기, 지방연료를 리용하여 국가전력망에 의존하지 않는 여러가지 중소형자체전력생산기술을 적극 개발도입하여야 한다. 지난해에 석탄공업부문에서 혁신을 일으키는데 이바지한 짬버럭층과 완경사중박층구역에서의 능률높은 채탄방법 등 선진적인 과학기술성과들을 확대도입하여 석탄증산투쟁을 힘있게 추동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신년사에서 전후에 복구건설을 한것처럼 전당, 전군, 전민이 떨쳐나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릴것을 호소하시였다.

우리 당이 선포한 자연과의 전쟁에서도 승리의 돌파구는 과학자, 기술자들이 열어야 한다. 모든것이 파괴되고 재더미만 남았던 전후의 빈터우에서 복구건설에서도 조선사람의 본때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불과 40일만에 전기로를 복구하여 첫 쇠물을 뽑아내고 2주일도 못되는 사이에 회전로를 복구하여 세멘트생산에 착수한 강선과 승호리세멘트공장 로동계급의 앞장에도, 조선은 100년이 걸려도 일떠서지 못한다고 훼친 미제의 면상을 후려치며 단 3년만에 복구건설을 끝낸 기적창조의 선봉에도 다름아닌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이 서있었다.

산림과학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자기들이 내놓는 하나하나의 연구성과가 조국의 산들을 푸른 숲이 우거진 황금산으로 전변시키는 씨앗이 되고 밀거름이 되며 자연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앞당기는 한발한발의 총포탄이 된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결사의 각오를 안고 오늘의 산림복구전투에 기발을 들고 나서야 한다.

모든 과학자, 기술자들은 연구소와 대학의 울타리를 벗어나 들끓는 현실에 적극적으로 뛰여들어 사회주의경제강국, 문명국건설의 실천이 제기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앞장에서 풀어나가야 한다.

남들이 열걸음, 백걸음 걸을 때 일행천리하여야 할 우리에게는 아늑한 연구실에 앉아 실험실적결과에 만족하거나 책상머리에서 탁상공론으로 시간을 보내는 말공부쟁이, 책상주의자들이 필요없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실현에서 큰 몫을 하고있다고 높이 평가하신 김책공업종합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은 탐구의 배낭을 메고 현장으로 내려가 로동계급과 뜻이 통하고 정이 통하는 한덩어리가 되여 현실적의의가 있는 연구성과를 내는 기술혁명수행의 선구자가 되고있으며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곳에는 어김없이 나타나 풀어제낌으로써 현대판 홍길동으로 인민들의 아낌없는 찬사를 받고있다. 바로 이런 과학자, 기술자들을 우리 당은 사랑의 금방석에 남먼저 앉혀주고있으며 발전되고 문명한 건축물들을 일떠세워 그 누구보다 먼저 이들에게 안겨주고있다.

지금 평양메기공장과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 그리고 체육과 보건부문을 비롯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깊이 관심하시는 여러 부문의 수많은 단위들로는 정초부터 국가과학원과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건축종합대학, 리과대학, 평양기계대학, 한덕수평양경공업대학을 비롯한 과학연구부문의 수많은 과학자, 기술자들이 달려나가 생산공정의 현대화와 생산정상화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풀기 위한 두뇌전, 기술전, 최첨단돌파전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은 사색과 탐구, 열정의 활무대인 들끓는 사회주의강성국가 건설전투장마다에서 과학기술로 혁신의 불씨를 안겨주고 기적의 불길을 지펴올리며 전진의 돌파구를 열어제낌으로써 어디서나 먼저 찾고 누구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연구사, 우리 재사가 되고 당과 조국이 내세우는 나라의 보배가 되여야 한다.

과학기술발전에 모든 성과의 비결, 비약의 지름길이 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과학기술을 생명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과학전선이 사회주의수호를 위한 치렬한 제1선전장으로 되고있는 오늘날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사업은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한한 문제가 아니라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떨쳐나서야 할 전국가적, 전인민적사업이다.

당과 국가앞에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사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있는 일군들부터가 과학기술이 혁명과 건설의 생명선이라는것을 단단히 명심하여야 한다.

일군들은 자기들의 어깨우에 당정책의 운명이 놓여있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과학기술로 자기 부문, 자기 단위를 일신시키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첨단돌파집단으로 만들기 위한 투쟁에서 기수가 되고 전위투사가 되여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조국의 자랑으로 값높이 내세워주신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과 같은 전형단위들의 경험은 책임일군의 높은 실력에 의하여 한개 단위가 조업후 몇년밖에 안되는 짧은 기간에 나라를 대표하고 경쟁력을 가진 집단으로 일떠서게 된다는것을 실천으로 증명하고있다.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경성애자공장, 2.8직동청년탄광, 안악군 오국협동농장을 비롯하여 일이 잘되고 종업원들이 자기 일터에 대하여 애착을 가지고있으며 사회주의만세를 부르는 단위에는 례외없이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을 높이 받들고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과학기술에 정통한 실력있는 일군들이 있으며 이런 일군들이 있는 곳에서 온 나라에 귀중한 경험을 주고 통장훈을 부르는 기적이 창조되며 단 몇해안에 독점지표를 가진 참신하고 혁신적인 기업이 탄생하게 된다.

평범한 로동자의 기술기능수준이 낮으면 제품 하나가 잘못되지만 책임일군이 높은 과학기술을 소유하지 못하면 그 단위전체가 침체상태에 빠지게 되고 저도 모르게 패배주의자가 되고만다.

당의 크나큰 정치적신임에 의하여 한개 단위를 책임진 일군이 과학기술을 생명으로 틀어쥐지 못하고 실력이 없어 자기 단위를 제구실을 못하고 생명력을 잃은 단위로 시대에 뒤떨어지게 만든다면 자기를 내세워준 당과 인민앞에 어떻게 머리를 쳐들고 나설수 있겠는가.

오늘날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앞장에 선 본보기단위들의 실력가형의 일군들과 우에다 손을 내밀기를 잘하고 쩍하면 우는소리를 하는 패배주의자들의 근본차이의 하나가 바로 과학기술을 대하는 립장과 관점, 태도에 있으며 제2의 필수적인 실력인 과학기술지식의 유무에 있다.

일군들은 그 어떤 물질적자원이나 객관적조건이 아니라 지식자원에 의거한 과학적인 기업전략, 경영전략을 세우고 하나하나 실속있게 실천해나가야 하며 자기들부터가 새로운 과학기술의 적극적인 수요자, 창조자가 되여야 한다. 특히 인재가 모든것을 결정하는 오늘의 시대에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 필요한 인재를 다른데서 끌어올 생각만 하지 말고 여러가지 계기와 수단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자체로 키워써야 하며 그들이 성과를 냈을 때에는 성의껏 진심으로 평가를 잘해주어야 한다. 끊임없이 전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사업의 지속적발전을 위한 정보원천을 끊임없이 탐구하고 구축함으로써 자기를 알고 남을 알수 있는 폭넓고 깊이있는 정보자원에 의거하여 높은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과학기술을 모르면 한걸음도 전진하지 못한다는것을 명심하고 자신의 과학기술지식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공장의 로동자이든 심심산골의 산림감독원이든 누구나 당의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구호를 자기자신을 위한 삶의 요구로 받아들이고 피타게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지식과 기술로 자기 공장, 자기 일터에서 자기 직분을 다하는 보배와도 같은 존재, 없으면 안될 귀중한 인재로 준비하여야 한다.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는 전민학습을 위한 조건들이 가는 곳마다 그쯘히 마련되여있는것만큼 누구나 정열적으로 꾸준히 노력하면 인재가 될수 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기 일터에서 4.15기술혁신돌격대활동을 비롯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에 목적의식적으로 참가하여 기술기능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며 과학기술지식보급실의 적극적인 리용자가 되고 원격교육대학의 학생이 되여 배우고 배우고 또 배워야 한다.

그리하여 올해를 우리 당의 전민과학기술인재화구상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큰걸음을 내짚는 일대 전환의 해로 되게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목표는 높고 신심은 확고하다.

조국해방 일흔돐과 당창건 일흔돐 대축전장으로 향한 우리의 장엄한 총공격전의 앞길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가 승리의 횃불마냥 눈부시게 밝혀주고있다.

모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존엄을 떨치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미래를 앞당기기 위한 올해의 총공격전에서 다시한번 승리함으로써 당과 조국에 드리는 자랑찬 선물을 안고 10월의 경축팡장에 떳떳하게 들어서자.

1.4분기 인민경제계획 앞당겨 수행

각지 고려약공장들에서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정신을 높이 받들고 각지 고려약공장들에서 그 어느때보다 의약품생산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지난해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인민들이 사회주의제도가 좋다는것을 사회주의보건제도와 같은 사회적혜택속에서 느끼도록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여러가지 약들을 많이 생산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온 나라 인민들을 조국해방 일흔돐과 당창건 일흔돐을 뜻깊게 맞이하기 위한 올해의 총진군에로 힘있게 부른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의약품생산을 늘일데 대하여 다시금 강조하시였다.

강성국가건설을 진두에서 지휘하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각지 고려약공장들에서 정초부터 생산적앙양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지난 2월 중순까지 1.4분기 인민경제계획을 공업총생산액적으로, 지표별로 앞당겨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의 전통의약품인 고려약생산을 늘이는것은 당의 예방의학적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고 인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지난해에 전국의 고려약공장들의 앞장에서 힘차게 달려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빛나게 완수한 강계고려약가공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전례없는 의약품생산성과로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업적단위의 영예를 계속 빛내여나갈 불같은 열의안고 새해전투에 진입하였다.

이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공장을 다녀가신 때로부터 5년이 되는 올해 7월말까지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기어이 끝낼 대담한 목표를 내세우고 첫시작부터 기세좋게 돌격전을 벌려나갔다.

대중의 정신력을 총발동하여 한해계획수행에 필요한 약초들을 지난해에 이미 마련해놓은 공장의 일군들은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뚫고헤치며 기대마다 만가동, 만부하의 동음을 높이 울려 많은 대중약품, 상비약품들과 보약들을 생산하였다.

년초부터 일정계획을 매일 평균 두배로 넘쳐 수행해온 공장에서는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한 전투를 결속하는 한편 1.4분기 인민경제계획을 기한전에 끝내였다.

10여년동안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좋은 약들을 많이 만들어 전국에 소문을 낸 평천고려약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도 당의 보건시책이 인민들에게 더 잘 가닿도록 하는데서 자신들이 지닌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고려약생산에서 련일 혁신을 이룩하고있다.

지난 1월 서흥군, 법동군, 함흥시를 비롯한 여러곳에서 부족되는 약초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한 평천고려약공장의 일군들은 농축설비를 새로 개조하여 종전에 비해 고려약생산을 훨씬 늘일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다. 그리하여 1.4분기 인민경제계획을 지난해보다 보름이나 앞당겨 끝냈다.

이와 함께 공장에서는 혈압낮춤작용과 심장질병예방 및 치료에 좋을뿐만아니라 간보호작용이 뚜렷한 여러가지 건강식품들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도 마지막단계에서 다그쳐나가고있다.

혁신의 불길은 세포고려약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속에서도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과학기술을 확고히 앞세워 사회주의경제강국, 문명국건설에서 전환을 이룩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들고 공장에서는 지난 1월 고려약의 유효성분들을 빠른 시간에 추출, 려과하는데 필요한 설비를 새로 제작하여 생산에 받아들였다. 결과 공장에서는 지난 시기보다 고려약의 질을 높이면서도 생산기일을 훨씬 단축하여 맡겨진 1.4분기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수행하였다.

자재확보와 더불어 생산설비의 현대화를 적극 실현하여 이룩한 강계고려약가공공장, 평천고려약공장, 세포고려약공장의 혁신적성과는 뜻깊은 올해에 많은 의약품을 생산할 열의에 넘쳐있는 전국의 고려약공장 일군들과 로동계급을 크게 고무추동하고있다.

현재 순안, 대동강고려약공장을 비롯한 전국의 여러 단위들에서 1.4분기 인민경제계획을 2월말까지 앞당겨 끝낼 확고한 신심에 넘쳐 계속혁신, 계속전진하고있다.

본사기자 방 경 찬

출어준비와 바다나물생산에서 혁신

황해남도협동수산경리위원회에서

황해남도협동수산경리위원회아래 각 수산협동조합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황금해의 력사를 창조한 인민군대의 투쟁기풍을 본받아 년초부터 총공격전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도협동수산경리위원회 일군들은 올해 높이 세운 수산물생산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대책안을 현실성있게 세우고 인민군대 지휘관들처럼 통이 크게 일판을 벌려나가고있다. 특히 수산협동조합들에서 고기배수리와 어구의 현대화를 다그치고 배들의 출어일수를 늘이며 앞선 물고기잡이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는것과 함께 바다나물을 대대적으로 생산하는데 힘을 넣도록 하고있다.

석천, 룡당, 구월수산협동조합을 비롯한 여러 수산협동조합들에서 배수리를 제때에 하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고있다. 이곳 수산협동조합 일군들은 고기배들의 성능을 높이고 배수리기일을 단축하기 위해 수리기지의 설비를 보강하거나 새로 설치하는 사업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여러 재배어업협동조합들에서 바다가양식에 힘을 넣어 성과를 확대하고있다. 이곳 협동조합들에서는 지금 다시마떼관리와 솜음생산을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고있다.

도협동수산경리위원회의 일군들은 새로운 기술혁신안들을 생산에 적극 받아들이는것이 올해 수산물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킬수 있는 중요한 방도라는것을 명심하고 수산부문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창조적협조를 더욱 강화해나가고있다.

이와 함께 내부예비를 최대한 탐구동원하여 어구와 양식자재생산기지들을 정비보강하고 그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잘해나가고있다.

도협동수산경리위원회아래 각 수산협동조합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해 지금 어구준비와 배수리, 바다나물생산에서 많은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특파기자 리 승 철

공동구호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할 일념으로 생산을 다그치고있다.
—평양326전선공장에서— 본사기자 림 학 락 찍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평 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각하

각하

나는 김정일대원수각하의 탄생일인 2월 16일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나자신과 그리고 나이제리아련방공화국 정부와 인민의 이름으로 각하께 열렬한 축하를 드리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 두 나라가 쌍무관계를 계속 확대발전시키면서 국제무대에서 공동의 견해를 가지고 협력을 강화하고있는데 대하여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조선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각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립니다.

나이제리아련방공화국 대통령
굳락크 에벨레 죠나탄
2015년 2월 3일 아부쟈

평 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각하

각하

나는 경사스러운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먄마련방공화국 인민과 나자신의 이름으로 각하께 우리의 따뜻한 축하와 최대의 축원을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커다란 발전을 이룩하며 귀국인민에게 끊임없는 진보와 번영이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이 기회에 각하께서 건강하시고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실것과 아울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더욱 발전하게 되기를 충심으로 바랍니다.

먄마련방공화국 대통령
테인 세인
2015년 2월 5일 네이삐도

평 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각하

각하

나는 조선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신 김정일각하의 탄생 73돐에 즈음하여 나자신과 우간다공화국 정부와 인민의 이름으로 각하께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에게 가장 열렬한 축하와 축원의 인사를 보냅니다.

위대한 령도자께서는 조선인민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보다 단결되고 위력한 나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사회경제발전에서 위대한 변혁을 이룩하시였습니다.

우리는 김정일각하의 생애와 위대한 업적을 높이 평가하면서 각하와 그리고 귀 정부와 인민과의 훌륭한 쌍무관계가 계속 발전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나는 각하께서 건강하실것과 조선인민에게 번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각하께 다시한번 가장 열렬한 축하와 충심으로 되는 축원의 인사를 보내면서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우간다공화국 대통령
요웨리 카구타 무쎄베니
2015년 2월 11일 캄팔라

평 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동지께

존경하는 김정은원수동지

저는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이신 김정일동지의 탄생 73돐이 되는 매우 뜻깊은 날인 2월 16일에 즈음하여 메히꼬로동당의 전체 당원들과 저자신의 이름으로 위대한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경의를 드리는 영광을 가집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정력적으로 령도하시면서 조선인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세계사회주의위업의 승리적전진을 위하여 바치신 혁명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은 사회주의조선과 더불어 영원할것입니다.

저는 이 기회에 당신께서 주체혁명위업과 세계자주화위업의 완성을 위한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는 고귀한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시기를 가장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메히꼬로동당 전국지도자
국회의원 알베르또 아나야 구띠에레스
2015년 1월 27일 메히꼬

평 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은동지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조선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73돐을 맞으며 저희들은 조선인민과 함께 조국의 참된 아들이신 그이께서 이룩하신 업적을 돌이켜보고있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수십년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령도하시면서 나라의 자주권과 국방력을 강화하시고 사회주의사회건설에서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시였습니다.

올해는 조선로동당과 로씨야련방공산당에 있어서 특별한 해입니다.

저희들은 당신들과 함께 조선로동당창건 70돐과 조선해방 70돐을 경축하게 될것입니다.

저희들은 당신께서와 조선인민이 앞으로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가리키신 길을 따라 확신성있게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경의를 드립니다.

로씨야련방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게. 아. 쥬가노브
2015년 2월 12일 모스크바

평 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신
김정은동지각하께

제1비서동지각하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영원한 위원장이신 김정일각하의 탄생 73돐에 즈음하여 적도기네민주당 전체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적도기네민주당 창건자, 위원장인 오비앙 느게마 므바쏘고 각하의 이름으로 각하께와 그리고 각하를 통하여 조선로동당과 전체 조선인민에게 충심으로 되는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뜻깊은 날에 즈음하여 저희들은 조선인민의 가장 탁월한 수령이신 그이께 경의를 드리면서 이날을 성대히 경축하기를 바랍니다.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립니다.

적도기네민주당 총비서
헤로니모 오싸 오싸 에꼬로
2015년 2월 12일 말라보

위대한 김정일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진문헌에 꽃바구니를 증정하는 행사
로씨야에서 진행

위대한 김정일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진문헌에 꽃바구니를 증정하는 행사가 16일 로씨야 하바롭스크시 제11중학교에서 진행되였다.

참가자들은 김정일명칭 로조친선어린이련합교실에 모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진문헌에 꽃바구니를 증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학교교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의의깊은 행사를 진행하는것은 우리 학교의 영광이다.

조선의 주요계기마다 학교에서 진행되는 다채로운 행사들을 통하여 전통적인 로조관계와 함께 두 나라 어린이들의 친선의 감정도 두터워지고 있다.

우리는 김정일명칭 로조친선어린이련합교실을 통하여 조선어린이들의 행복하고 밝은 모습과 조선의 력사와 전통에 대하여 널리 소개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

【조선중앙통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브루네이 다루쌀람 추장, 국가수반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반다르 세리 베가완
브루네이 다루쌀람 추장, 국가수반
하지 하싸날 볼키아흐페하

나는 브루네이 다루쌀람 국경절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와 인사를 보냅니다.

최근년간 복잡한 국제정세속에서도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는 끊임없이 공고발전되여왔습니다.

나는 이에 대하여 기쁘게 생각하면서 친선적인 귀국인민에게 진보와 번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4(2015)년 2월 23일 평 양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 쌓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깊이 새겨간다. -은률광산에서- 본사기자 리진명 찍음

혁명가의 생은 백옥같은 충정으로 빛난다
혁명렬사 오진우동지 서거 20돐에 즈음하여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 정신을 높이 받들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켜나가고있다.

온 나라에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이 세차게 휘몰아치는 오늘 위대한 수령님을 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으로 높이 받들어온 항일혁명선렬들의 숭고한 정신은 우리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를 백배해주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심어주는 항일혁명선렬들의 전렬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가장 충실한 혁명전사, 위대한 장군님의 가장 친근한 혁명전우, 혁명동지였던 오진우동지도 있다.

백두밀림에서 항일혈전을 벌리던 10대의 시절부터 생의 마지막까지 군복을 입고 당과 수령을 백옥같은 충정으로 받들어온 오진우동지의 생애는 참다운 혁명적인생관에 대하여 가르쳐주는 숭고한 모범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받들어모시고 간고하고 준엄한 혁명의 길을 걸어온 항일혁명투사들은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참된 혁명전사들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그처럼 아끼고 내세워주신 오진우동지가 조국과 인민이 기억하는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된것은 한생토록 총대를 틀어쥐고 일편단심 당과 수령을 충직하게 받들어왔기때문이다.

오진우동지는 일생동안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 충정을 다하였으며 우리 혁명무력의 강화발전에 특출한 공헌을 한 우리 혁명의 원로였으며 견결한 로혁명가였다.

일제의 극악한 식민지통치로 우리 민족이 수난을 당하던 주체6(1917)년 빈농가의 가정에서 태여난 그는 일제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을 안고 소년선봉대와 반일자위대에 들어가 활동하였으며 16살에는 반일인민유격대에 입대하여 투쟁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세심한 지도와 육친적인 보살핌속에서 유능한 군사지휘관으로 성장한 오진우동지는 항일무장투쟁의 전기간 대담하고 능숙한 군사정치활동으로 적들에게 섬멸적타격을 주고 조국해방위업을 이룩하는데 빛나는 공헌을 하였다.

오진우동지는 해방후 평양시와 지방의 당 및 보안기관의 책임적위치에서 사업하면서 당을 강화발전시키고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였으며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인민군련합부대의 지휘관으로서 위대한 수령님의 전략전술적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전쟁승리를 보장하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그는 전후의 어려운 시기 당과 국가, 군대의 중요한 직책에서 사업하면서 안팎의 원쑤들의 준동을 짓부시고 당과 수령을 견결히 옹호보위하였으며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하는 전당, 전군, 전민의 정치사상적 단결을 반석같이 다지고 인민군대를 강화하는데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쳤다.

오진우동지는 주체56(1967)년부터 생의 마지막시기까지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총참모장, 인민무력부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의 중책을 지니면서 우리 당의 주체적인 군사로선을 관철하며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무력으로 확고히 담보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사업하였다.

오늘도 우리 군대와 인민은 팔순을 가까이한 고령에도 군복을 입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믿음직하게 보좌해드리던 오진우동지의 모습을 생생히 기억하고있다.

일찌기 손에 총을 잡고 일생동안 당과 수령을 무장으로 받들며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몸바쳐 투쟁해온 오진우동지는 주체84(1995)년 2월 25일 78살을 일기로 애석하게도 고결한 생애를 마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속에서 혁명의 천만리길을 변함없이 걸어온 오진우동지의 생애는 당과 수령에 대한 변함없는 충정을 지니고 총대로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한 선군혁명투사의 빛나는 한생이였다.

오진우동지의 빛나는 생애는 위대한 당을 따라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있어서 령도자를 받드는 충실성의 고귀한 모범으로 되고있다.

혁명가의 참다운 삶은 백년세월이 흘러도 변색이 없고 부서져 흩어져도 흰빛을 버리지 않는 백옥처럼 령도자를 순결하게 받드는데 있다.

오진우동지는 투철한 혁명적수령관을 지니고 일편단심 당과 수령께 충정과 의리를 다한 주체형의 혁명가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의 한생에 대하여 회고하시면서 오진우동지와 같이 간고한 혁명의 길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보좌하는데 자기의 한생을 다 바친 특출한 혁명가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우리 당에 오진우동지와 같은 로혁명간부가 있었다는것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을 따왔던것보다 더 귀중한것이라고 교시하시였다.

명도자에 대한 백옥같은 충정은 오진우동지가 지닌 사상정신적특질의 핵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오진우동지의 불길속에서 그이의 위대성을 폐부로 절감하면서 뿌리내리고 억척같이 다져진 신념이였다.

오진우동지가 어버이수령님을 처음으로 만나뵈온것은 주체21(1932)년 가을 왕청현 소북구에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정중히 인사를 올리는 그가 소북구아동단 지도원이라는것을 아시고는 아동단지도원이란 말이지, 수고가 많겠구만라고 하시며 그의 등을 다정히 두드려주시였다.

백두산야를 주름잡으시며 항일전의 총성을 높이 울리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직접 만나뵈오며 그이의 천출위인상에 접한 오진우동지는 이분이시야말로 민족의 태양이시라는 신념을 굳게 간직하게 되였다.

그때로부터 오진우동지는 홍안의 시절에나 흰서리가 내린 때에나, 시련의 시기에나 순탄한 시기에나 자신의 마음속에 새긴 삶의 좌우명, 신념의 좌표대로 직선주로를 달려왔다.

《조국광복회10대강령》과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를 비롯한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들을 자자구구 새기고 사령관동지의 친솔하에 진행된 북봉오동전투, 천교령전투, 라자구전투, 로흑산전투를 비롯한 수많은 전투들에서 무비의 용감성을 발휘한 오진우동지였다.

오진우동지는 민족배타주의자들과 종파사대주의자들이 조선혁명의 주체적인 로선을 헐뜯을 때에도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며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권위를 견결히 옹호하였다.

오진우동지는 전후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이 음으로양으로 책동할 때에도 위대한 수령님을 총대로 옹위하였으며 당의 기초축성시기에도 인민군대안에 혁명적령군체계와 군풍을 세우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였다.

오진우동지가 인민무력부장으로 사업하던 때였다.

어느 한 대회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오진우동지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시였다. 그 모습을 이윽토록 바라보던 외국의 한 국가수반이 위대한 수령님께 저분들사이는 무슨 관계인가고 말씀올리였다. 그 질문을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과 군대와의 관계이라고 명쾌하게 대답해주시였다.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지니고 위대한 장군님을 총대로 충직하게 받들어온 여기에 오진우동지가 우리 혁명앞에 쌓아올린 특출한 공적이 있다.

하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오진우동지와 흰옷을 입고 흰 구두를 신고 사진을 찍은데 대하여 교시하시면서 오진우인민무력부장은 나와 뜻을 같이하는데서는 철저하였다고 회고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오진우동지가 서거한 다음에도 그를 잊지 못해하시며 수령님께서 김책동지를 좋아하시였던것처럼 자신께서도 오진우동지를 좋아하였다고, 당을 따르는 사상의 견결성에서는 오진우동지만한 사람이 없었다고 감동깊게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우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당과 수령을 변함없이, 순결하게, 끝까지 받들어온 오진우동지의 삶은 우리 천만군민의 거울로 되고있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이 오진우동지처럼 언제나 한모습, 한본새로 위대한 당을 받들어나갈 때 우리 혁명의 전진을 가로막을 힘은 세상에 없을것이다.

오진우동지가 발휘한 결사관철의 정신은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어떻게 관철하여야 하는가를 숭고한 모범으로 보여주고있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령도를 높이 받들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산악같이 일떠섰다.

오진우동지의 무조건적인 결사관철의 기풍은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 총궐기해나선 우리 천만군민에게 완강한 공격정신과 견결한 투쟁정신을 심어주고있다.

가장 충직하게, 진실하게, 사소한 편차도 없이 완전무결하게.

이것이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도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교시를 결사관철하여온 오진우동지의 혁명가적풍모였다.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오진우동지는 전선에서 소환되여 병치료를 받은적이 있었다. 입원치료를 끝내고 찾아온 오진우동지를 반갑게 맞아주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아직도 동무의 얼굴색이 좋지 않다고 하시면서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 치료를 받아야 하겠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제는 건강한 몸이 되였으니 전선으로 보내달라고 막무가내로 간청하는 오진우동지를 바라보시면서 나야 어제나 오늘이나 사령관이 아닌가, 돌심장이 아닌 이상 사령관이 앓는 사람을 전장에 내보내고 어떻게 발편잠을 자겠는가, 그러니 근심말고 병원에 돌아가 병이 완쾌될 때까지 치료를 받아야 한다, 전선에 나가는 문제는 그다음에 보자고 이르시였다.

순간 오진우동지는 무릎을 꿇으며 최고사령관동지, 최고사령관동지의 하해같은 사랑을 제 어찌 받아안기만 하겠습니까, 저는 건강합니다, 얼마든지 싸울수 있습니다라고 간절히 말씀드렸다. 이날 오진우동지는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새로운 전투임무를 받아안고 방을 나섰으며 수령님께서 주신 과업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철저히 관철하였다.

이렇듯 숭고한 의리와 결사관철의 투쟁기풍으로 오진우동지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보좌하여 여러 공장, 기업소, 농촌들과 수많은 인민군부대들을 돌아보면서 일단 대원수님들께서 교시하신 문제에 대하여서는 밤잠을 잊고 뛰여다니며 무조건 끝까지 수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일단 과업을 주시면 아무리 생소한 부문이라 할지라도 지체없이 달려나갔고 교육사업과 정치사업 등 어떤 사업을 맡기여도 수령님과 장군님의 의도에 맞게 사업을 내밀어 기쁨을 드리군 하던 오진우동지였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행동으로 표현된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말은 적게 하여도 실천으로 당을 받들어온 오진우동지처럼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해나갈 때 대원수님들의 구상과 념원이 하루빨리 실현되게 될것이다.

오진우동지의 한생은 당과 혁명, 사회와 집단에 헌신하며 고지식하고 청렴결백하게 생활하는 혁명룰리를 지닐 때 혁명가의 삶을 빛내일수 있다는것을 가르쳐주고있다.

혁명가는 수령의 사상을 신념으로 간직할뿐아니라 숭고한 혁명룰리를 지닌 고상한 인간적풍모의 소유자이다. 당과 수령앞에서 고지식하고 동지들과 인민들앞에서 겸손하며 청렴결백한 사람만이 혁명의 길에서 한생을 빛내일수 있다.

오진우동지는 당과 수령을 받드는데서 티끌만 한 사심이나 가식도 없었으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이민위천의 뜻을 진심으로, 량심적으로 받들었다.

혁명의 군복을 입고 오랜 나날을 보낸 오진우동지는 언제나 병사대중속에 들어가 그들과 침식을 같이하는것을 즐기였으며 마른일, 궂은일 가리지 않고 결린 문제들을 앞장에서 풀어나갔다. 오진우동지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인민관을 심장에 새기고 인민군대가 인민들과의 혈연적련계를 강화하도록 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으며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침해하는 현상과는 추호의 양보나 타협도 몰랐다.

오진우동지와 함께 사업하던 일군들은 지금도 《황금흑사심》이란 말을 자주 외우군 한다.

오진우동지는 《어떤 사람이든 황금덩이를 눈앞에 보면 마음이 절로 시꺼매진다는 이 글뜻을 똑바로 새겨두오. 일군들은 언제나 당과 국가앞에 솔직하고 청렴결백해야 하는 법이요.》라고 늘 이야기하면서 자신과 일군들의 생활을 량심적으로, 원칙적으로 총화하군 하였다.

이런 오진우동지였기에 군대의 중요직책에서 사업하면서도 언제나 겸손하고 소박한 품성을 지니고 청렴결백하게 생활하는것을 체질화하였으며 군인들과 인민들에게 위대한 수령님들의 뜨거운 사랑이 그대로 가닿게 하기 위하여 수많은 초소와 일터들을 찾군 하였다.

오진우동지가 지녔던 혁명가적풍모는 오늘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의도를 깊이 간직하고 인민생활에서 걸린 문제, 인민들이 가슴아파하는 문제들을 풀어나가는데서 일군들이 본받아야 할 귀감으로 되고있다.

모든 일군들이 오진우동지처럼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인민관을 깊이 새기고 고지식하고 청렴결백하게 사업하고 생활하는것을 마땅한 혁명룰리로, 혁명적당풍으로 간직할 때에 우리의 일심단결은 더욱 굳건히 다져질것이다.

혁명의 길에 나선 첫날부터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당과 수령을 백옥같은 충정으로 받들어온 참다운 혁명가인 오진우동지는 비록 우리곁에 없으나 그가 지녔던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무한한 충직성과 고결한 혁명가적풍모는 오늘도 우리 군대와 인민이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을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끝없이 고무해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을 신념과 의지, 량심과 의리로 받들고 수령님들의 교시를 결사관철한 오진우동지처럼 경애하는 원수님과 사상과 숨결도, 발걸음도 같이해나가며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끝까지 관철해나가는 천만군민이 있기에 주체혁명은 반드시 최후승리를 이룩할것이다.

정선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에 당사업의 화력을 총집중하자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정신을 높이 받들고 떨쳐나선 각지 당조직들

새로운 각오, 새로운 작전, 새로운 발걸음

평 안 북 도 당 위 원 회 에 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 관한 소식은 지금 온 나라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 인민들을 끝없이 격동시키고있으며 새로운 영웅적투쟁에로 부르고있다.

평안북도당위원회 일군들의 전례없이 앙양된 사업기풍을 통해서도 우리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정신을 높이 받들고 한결같이 떨쳐나선 전당의 비상한 의지와 불같은 열의를 느끼게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장군님의 유훈을 강령적지침으로 틀어쥐고 한치의 드팀도 없이,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여 장군님의 구상과 념원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야 합니다.》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 참가하였던 도당책임일군은 돌아오자마자 도당위원회일군들에게 회의장의 격동된 분위기와 회의정신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새로운 각오, 새로운 작전, 새로운 발걸음으로 도당위원회사업을 완전히 전환시키자고 호소하였다.

도당위원회의 비서, 부장, 과장들을 비롯한 일군들은 우선 새로운 사상적각오를 가지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도에 주신 유훈을 깊이 학습하는 사업부터 착실하게 하면서 해야 할 일감들을 하나하나 찾아나갔다.

이 과정에 도당위원회일군들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사업과 관련하여 주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교시와 지시를 빠짐없이 찾아 다시 정립하고 그것을 지침으로 하여 모든 사업을 전개해나가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조직진행하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일군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가운데서 집행하지 못하였거나 집행중에 있는것, 형식적으로 집행하였거나 일관하게 집행하지 못하고있는 문제들을 종합하고 중심고리를 틀어쥔데 기초하여 유훈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년차별목표와 단계별계획을 현실성있게 세우는데 힘을 넣었다.

이에 따라 도당위원회적인 작전, 부서별작전이 빈틈없이 세워졌다.

새로운 작전은 새로운 발걸음을 요구한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모든 일군들이 굳어진 낡은 사업방법과 대담하게 결별하고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정신에 맞게 사업기풍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게 하는데 응당한 힘을 집중하였다.

도당책임일군들이 실천적모범으로 새로운 발걸음이 어떤것인가를 보여주었다.

도당책임일군은 자신이 직접 신의주방직공장, 신의주화장품공장, 신의주신발공장 등 경공업공장들과 수산부문 기업소들에 나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단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과 함께 유훈관철을 위한 방도들을 찾아나갔다.

종전같으면 몇몇 일군들이나 만나던 고정격식화된 틀에서 벗어나 생산자대중을 될수록 많이 만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뛰고있다.

도당책임일군의 실천적모범을 따라 도당위원회의 각 부서의 책임일군들은 물론 모든 일군들이 사무실에 앉아 문건놀음을 하던 낡은 사업방법에서 완전히 벗어나 대중속에 들어가 유훈관철의 방도도 찾고 앞채를 메고 대중을 이끄는 화선식사업기풍을 높이 발휘하게 되였다.

이 과정에 세포지구 축산기지 건설을 적극 다그치기 위한 문제를 토의하고 로력보충과 물질적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들이 세워졌으며 물확보를 위한 사업정형을 사회주의농촌테제발표기념일을 계기로 중간총화하고 굴포, 우물파기를 더욱 본격적으로 다그쳐 농사에 필요한 물을 더 많이 마련하기 위한 대책이 세워진것을 비롯하여 도의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수많은 대책안들이 쏟아져나오게 되였다.

특히 인민생활향상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농촌을 적극 도와주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중소농기구전시회를 통이 크게 진행할 계획을 세우고 도에서는 도급기관들이, 시, 군들에서는 공장, 기업소, 기관들이 참가하도록 조직사업을 진행하였으며 그 준비정형을 수시로 알아보고 필요한 대책도 세우며 힘있게 내밀고있다.

또한 령도업적단위 농장들을 잘 도와주어 이 단위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에서 기수가 되고 본보기가 되도록 하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에서 아래당조직들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부쩍 높이도록 하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밀고나가고있다.

하부지도를 맡은 부서들에서 아래당조직들을 도와주기 위한 작전을 빈틈없이 세운데 맞게 지도를 현실에 더욱 접근시켜 모든 단위 당조직들이 유훈관철에서 전투적위력을 높이 떨치게 하고있다.

특히 당세포들이 당정책관철의 결사대, 척후대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도록 도와주기 위한 사업에 힘을 집중하고 있다.

도안의 모든 당세포들을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쇠소리나는 산전투조직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이 도당과 시, 군, 련합기업소당조직들의 협동작전으로 힘있게 전개되고있다.

도안의 모든 당세포비서들이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결론을 다시금 깊이 학습하면서 당세포사업의 중심을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에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불러일으키기 위한데 두고 힘찬 투쟁을 벌려나가도록 하고있다.

이 과정에 도안의 모든 초급당조직과 당세포의 일군들과 당원들은 자기 뼈를 깎아서라도 인민생활을 높이겠다는 비상한 사상적각오를 가지고 분발하여 떨쳐일어나게 되였다.

그렇다.

모든 당조직들이 평안북도당위원회 일군들처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정신에 맞게 새로운 각오, 새로운 작전, 새로운 발걸음으로 떨쳐일어난다면 전당에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을 주선으로 틀어쥐고나가는 당사업기풍이 더욱 철저히 확립되여 우리 조국땅 그 어디에서나 장군님의 숭고한 념원이 활짝 꽃피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리 종 석

생 명 선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소식이 전당을 끓게 하고있다.

우리 단위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어떻게 벌려왔는가?

모든 당일군들이 이 물음앞에 자신들을 세워보며 지난 3년간의 사업정형을 총화해보고있다.

《우리 공장이 성과를 거둘수 있은 비결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을 위한 사업을 제1차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나간데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평양326전선공장 초급당일군의 목소리만이 아니다.

자동화, 정보화, 무인화된 현대적인 생산공정을 그쯘하게 갖춘 천지윤활유공장이며 주체가 철저히 선 공장으로 소문난 천리마타일공장, 횡포한 자연의 도전을 짓부시며 조국의 대지를 넓혀나가는 자랑 드높은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를 비롯하여 비약의 길로 줄달음치는 단위들마다에서 이런 한결같은 목소리가 울려나온다.

당조직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을 위한 사업을 어떻게 내밀었는가, 바로 여기에 오늘날 앞선 단위와 뒤진 단위의 근본차이가 있음을 현실은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은 모든 당조직들의 생명선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장군님의 사상과 의도대로, 장군님식대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당조직의 기본사명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이다. 수령의 유훈과 당정책관철을 떠난 당사업이란 있을수 없다. 당사업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관철에로 지향되고 복종되여야 하며 당사업의 성과도 여기에서 나타나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방향과 방도들이 뚜렷이 명시되여있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은 혁명의 교과서이며 만능의 백과전서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만 하면 불가능이란 없으며 최후의 승리는 확정적이라는것은 지난 3년간의 투쟁과정에 우리 군대와 인민이 신념으로 간직한 철의 진리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에 당사업의 화력을 총집중하여 온 나라를 유훈관철의 열풍으로 부글부글 끓게 하자.

이것이 당조직들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모든 당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충직한 전사, 제자답게 장군님의 유훈을 강령적지침으로 삼고 모든 사업을 오직 장군님의 뜻대로, 장군님식대로 해나가야 한다.

당조직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는것을 생명선으로, 주선으로 틀어쥐고 여기에 모든 사업을 철저히 지향시켜야 한다. 약동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전투적이며 진취적인 산정치사업과 치밀한 조직사업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켜야 한다.

당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당앞에 전적으로 책임지는 립장에서 작전하고 전개하여야 하며 유훈관철을 위한 투쟁을 중도반단하지 말고 일관성있게 내밀어 현실에서 그 생활력이 나타나게 하여야 한다. 당의 인민관을 자기의 신조로, 넋으로 간직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투쟁에 한몸을 깡그리 바쳐야 한다.

당일군들이여,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정신을 높이 받들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킴으로써 조선의 혁명가들이 수령의 유훈을 받들어 이 땅우에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어떻게 일떠세우는가를 세계앞에 똑똑히 보여주자.

중 심 고 리 와 지 름 길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 당위원회에서

일군들은 유훈관철의 중심고리로 되는 전투장들의 한복판에 지휘처를 정하고 어렵고 힘든 일에 어깨를 들이밀며 제기되는 문제를 현장에서 풀어나가고있다. 이것은 온 련합기업소에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열풍이 세차게 몰아치게 하는데서 커다란 작용을 하고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정신을 높이 받들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에서 중심고리를 옳게 찾아쥐고 비약의 큰걸음을 내짚고있는 이곳 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성과가 기대된다.

본사기자 리 정 수

그는 마치 시간의 흐름을 잊은듯 하였다. 벌써 1시간나마 창가에 서서 못박힌듯 움직일줄 몰랐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결론에 접하여 흥분을 달래지 못하는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책임비서 김철수동무였다.

철석의 신념과 의지, 숭고한 도덕의리심이 맥박치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결론의 자자구구를 심장에 정대로 쪼아박듯 새기는 그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일군들은 매사에서 구체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일하는것을 하나의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당책임일군에게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정형을 총화하던 지난 2월초의 일이 새삼스럽게 떠올랐다.

보고서에 지적된것처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고 짧은 기간에 수백량의 객차와 이동식레루맛댐용접기를 생산하고 고정식레루맛댐용접기를 새로 개발하여 생산한것을 비롯하여 적지 않은 성과들이 이룩된것만은 사실이였다. 하지만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결론을 자로 하여 유훈관철정형을 건당 따져볼 때 결코 만족할 형편이 못되였다. 사업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였다. 더우기 일부 유훈과업을 응당한 수준에서 집행하지 못하고있는 실태를 놓고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력사적인 결론에서 밝혀주신바와 같이 중심고리를 정확히 틀어쥐고 일하지 못하였다는것을 뼈아프게 자책하지 않을수 없었다.

(우리 원수님의 숭고한 뜻대로 중심고리를 바로 찾아쥐고 유훈관철의 지름길을 열어나가자.)

이런 립장으로부터 련합기업소 당위원회에서는 유훈관철을 위한 사업에서 중심고리를 바로 설정하는 문제를 매우 중시하였다.

당위원회에서는 일군들과 로동자들과의 진지한 협의를 거쳐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을 위한 중심고리를 찾아쥐게 되였다.

그것이 바로 기업소에서 기본을 이루는 기관차, 객차생산에서부터 현대화의 불길을 드세게 지펴올리기 위한데 당사업의 화력을 총집중하는것이였다.

이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게 되면 대중의 신심이 백배해지는것은 물론 유훈관철을 위한 모든 목표들이 련쇄적으로 실현되여 전반사업에서 비약적발전을 이룩할수 있다고 보았던것이다.

당위원회에서는 중심고리로 설정한 목표를 돌파하기 위한 세부적인 작전도 잘 짜고들고있다.

당위원회에서는 갱신된 8축 전기기관차, 현대적인 객차, 전동차생산과 새형의 교류기관차 개발을 위한 기술준비를 완료하도록 하는데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을 적극 발동하고있다.

가공부문의 주요설비들을 CNC화하기 위한 사업도 착실히 진행해나가고있다.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요구에 맞게 새로 꾸린 과학기술지식보급실을 통하여 더 많은 종업원들이 원격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한 사업도 주도세밀하게 짜고들고있다.

당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을 위한 중심고리를 틀어쥐고나가는데서 그 성과의 가장 중요한 방도를 일군들의 기수적인 역할에서 찾았다.

교훈을 찾고 분발한 당일군들의 목소리

결사관철의 투사로 억세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소식은 나의 가슴을 무한히 격동시키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새길수록 지난 기간 자신의 사업을 심각히 돌이켜보게 된다.

당사업은 곧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을 위한 사업이라는 관점에서 사업을 조직전개하지 못하였으며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장군님의 유훈과 당정책으로 철저히 무장한 결사관철의 전위투사들로 억세게 키우는데 당사업의 화력을 집중하지 못한것을 비롯하여 사업에서의 빈 공간들을 찾게 되였다. 심각한 교훈을 찾고 당사업을 새로 시작한다는 관점과 립장에서 일해나가겠다.

평안남도에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석탄생산이라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에 당사업의 화력을 총집중하겠다.

련합기업소안의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장군님의 유훈과 당정책을 확히 꿰들고 그 요구대로 살며 투쟁하는 결사관철의 전위투사들로 억세게 준비시키겠다. 그리하여 수령에 대한 충정과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만장약된 심장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에서 어떤 기적을 창조하는가를 남김없이 과시하겠다.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책임비서 정 룡 필

단위를 책임진 주인의 립장에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소식은 한개 단위 당사업을 책임진 나로 하여금 정신이 번쩍 들게 해주었다.

나는 과연 지금껏 자기 단위 사업을 전적으로 책임진 주인다운 립장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해왔는가.

떳떳한 대답이 나오지 않는다.

물론 지난 3년간 분원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을 위한 목표를 높이 세우고 이악하게 투쟁하여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자기 단위 사업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주인다운 립장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 정신에 비추어보면 너무도 먼거리에 있다고 본다.

몇해전 1월의 맵짠 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을 찾아오신 어버이장군님께서는 분원의 연구집단이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면서 과학연구사업에서 앞장서나갈데 대한 과업을 제시해주시였다.

끝장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자면 장군님의 유훈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끝장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밀고나가야 한다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 정신에 비추어볼 때 성과보다 부족점이 더 많았다.

우리는 지난 기간 농장에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높은 목표를 세우고 내밀었지만 끝장을 보는 완강성이 부족하여 더 거둘수 있는 성과도 거두지 못하였다. 이번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결론은 우리 일군들의 이런 낡은 일본새에 경종을 울린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지난 기간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에서 나타난 결함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고 유훈관철을 위한 사업을 제1차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 끝장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밀고나가겠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가운데서 집행한것과 집행하지 못한것, 중도반단된 문제들과 미진된 과업들을 종합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 끝까지 집행해나가겠다. 그리하여 우리 동봉땅을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에서 전국의 앞장에 선 단위로 만들겠다.

함주군 동봉리당비서 한 춘 경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정신을 높이 받들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기어이 관철할 불같은 결의를 다지고있다. —만수대창작사에서— 본사기자 찍음

온실남새생산의 과학화실현에서 나서는 문제(4)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국도처에 마련해놓은 축산기지와 양어기지, 온실과 버섯생산기지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여 인민들이 덕을 보게 하여야 합니다.》

온실남새생산을 과학화하여 생산을 늘이자면 온도, 빛, 습도, 공기관리를 남새작물의 특성에 맞게 잘하여야 한다.

온도관리를 잘하여야 한다.

남새작물은 생육에 알맞는 온도를 보장하여야 포기나 열매가 제대로 자라며 여러가지 병에 걸리지 않는다.

우선 온도가 낮은 시기의 관리를 잘해야 한다. 박막관리를 잘하여 찬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래를 틈이 없이 잘 씌워야 한다. 나래가 눈비에 젖지 않게 그우에 덧박막을 씌워야 한다.

나래씌우기와 벗기기를 제때에 하여야 한다. 나래씌우기는 온실안의 온도가 18～20℃ 아래로 내려가기 전(평양지방에서는 겨울철 오후 4시경)에 진행하며 벗기기는 아침에 해빛이 박막면의 전면에 퍼졌을 때 인차 하여야 한다.

눈이 내리거나 날씨가 흐려 해빛이 잘 비치지 않는 날에는 나래를 절반정도 올려주어 온실안의 온도를 지나치게 떨구지 말아야 한다. 부식토를 비롯한 유기질비료를 많이 내여 토양온도를 높여야 한다.

또한 온도가 높은 시기의 관리도 중요하다.

온도가 높아지면 온실의 웃부분을 열어 공기갈이를 하며 그래도 계속 높아지면 앞부분도 점차 열어놓는다.

여름철에 온도가 높고 빛이 세게 비칠 때에는 박막우에 나래를 2～3m사이로 덮어주거나 빛가림막으로 그늘을 지어준다. 온실앞턱에 호박을 3m사이로 심고 넌출을 박막우에 올려줌으로써 그늘을 지어줄수도 있다.

빛관리에 힘을 넣어야 한다.

빛은 온실에서 기본열원천이며 빛합성작용과 병을 막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박막의 안쪽면에 물방울과 성에가 생기지 않도록 하자면 기능성3겹온실박막을 리용하여야 한다.

또한 박막닦기를 한주일에 한번씩 하여야 한다.

남새작물의 빛합성은 대체로 오전에 진행되므로 제때에 나래를 벗겨주어야 한다. 필요없는 결가지, 늙은 잎, 병든 잎을 제때에 따주어 빛이 포기밑에까지 잘 비쳐지도록 하여야 한다.

습도관리를 잘하여야 한다.

남새작물은 90%정도가 물로 이루어져있으며 다른 작물들에 비하여 물을 많이 요구한다. 그러므로 작물의 특성에 맞게 알맞는 토양습도와 공기습도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토양습도관리를 잘하자면 물주기를 제때에 하여야 한다. 물주기회수와 한번에 주는 량은 계절과 날씨조건에 따라 달리하는데 생육초기에는 드물게, 적게 주고 생육중기에는 자주, 많이 주어야 한다. 여름철에는 포기당 2L정도씩 3일에 한번, 겨울철에는 7～10일사이로 1L정도의 물을 주면 좋다.

온도가 낮고 빛이 약할 때에는 토양습도를 낮추어야 한다. 이때 온도가 15℃이상 되는 물을 될수록 오전에 주어야 한다.

장마철에는 물빼기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공기습도관리도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온실안의 습도가 80%이상 높으면 작물들이 병에 걸리기 쉽다. 온실안의 습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바깥온도가 낮은 계절에도 오전에 나래를 올린 후 30분～1시간 지난 다음 15～20분간 공기갈이를 하여 밤새 높아진 습도를 낮추어야 한다. 토양수분증발을 막고 온실안의 습도를 낮추자면 흰색의 박막을 토양면에 씌우거나 고랑에 벼겨나 톱밥을 얇게 펴놓아야 한다.

공기관리에도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한다.

온실에서는 낮에 이산화탄소가 부족될수 있으므로 유기질비료를 많이 내여 그 함량을 높여주어야 한다.

추운 겨울에도 아침에 나래를 걷은 후 30분～1시간정도 지나서 온실박막면적의 1/10정도 되게 공기갈이박막 또는 공기갈이창을 열어 15～20분간 공기갈이를 하는 방법으로 이산화탄소를 보충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대기온도가 너무 낮으면 공기갈이시간을 짧게 하여 온실안의 온도가 지나치게 내려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온실안에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기갈이를 자주 하여야 한다.

온실남새농사를 하는 모든 기관, 단위들에서는 온실환경관리에서 나서는 이러한 요구들을 잘 알고 그대로 실천에 구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때 응당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것이다.

평양남새과학연구소 부소장
석 원 봉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쳐

맹산군목재일용품생산협동조합에서

얼마전 우리는 맹산군의 한 일군으로부터 맹산군목재일용품생산협동조합에서 질좋은 가구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 군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곳을 찾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백두의 혁명정신과 창조적투쟁으로 마련한 자랑찬 선물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떳떳이 들어서야 합니다.》

조합에서 만난 관리위원장 리용남동무는 백번 듣는것보다 한번 보는것이 낫다고 하면서 우리를 제재작업반으로 이끌었다. 작업반에 들어서니 제재기들이 아츠러운 소리를 내면서 아름드리통나무를 순식간에 켜내고있었다. 세명의 종업원들이 일하는 작업현장에는 갖가지 나무들이 규격별로 쌓여있었다.

《이 통나무들을 2～3일이면 전부 제재할수 있습니다. 종전같으면 1주일은 걸려야 할 작업과제이지만 우리 로동자들은 자랑찬 선물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떳떳이 들어서겠다며 낮에 밤을 이어 치렬한 전투를 벌리고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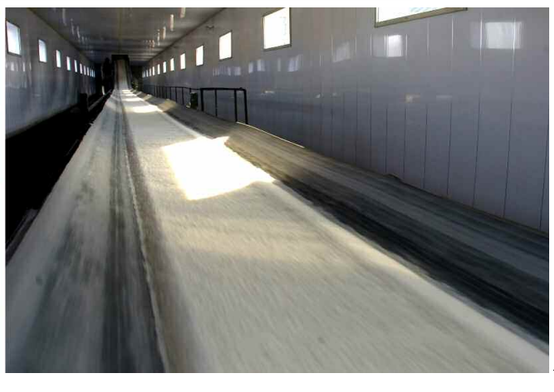
리용남동무가 하는 말이였다. 그의 말을 증명이나 하듯이 로동자들은 아름드리통나무들을 련속 제재기에 물리고있었다. 잠간사이에 여러 규격의 판자, 각재들이 쌓였다. 이어 우리는 가공작업반으로 향하였다.

여러대의 기대들이 고르로운 동음을 울리는 가공작업반에 들어서니 찬장, 이불장, 양복장, 책장 등 10여가지의 각종 가구생산이 한창이였다. 관리위원장동무는 지금 생산하고있는 가구제품모두가 군에서 진행되는 새 제품전시회에 내놓을 가구들이라고 하면서 조합의 종업원들이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높이기 위하여 열심히 배우고있다고 자랑섞인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이였다. 가공작업반원들이 가구의 면, 틀, 모서리 등 그 어디라 할것없이 섬세하게 가공하기 위해 애쓰며 노력하는것이 한눈에 알리였다.

우리는 조립작업반과 8월3일인민소비품작업반에도 들려보았다. 일터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깊은 인상을 받은것은 조합에 리선일, 한수복부부와 김동철, 길옥진부부를 비롯한 부부혁신자들은 물론 어머니와 딸 등 일터에서 일하는 가족혁신자들이 많은것이였다.

우리는 일터에 대한 애착심을 소중히 간직하고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애써 노력하는 조합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애국심을 가슴뜨겁게 느끼며 이곳을 떠났다.

특파기자 리 혁 철



련합기업소에서 힘있게 벌리고있다. —남흥청년화학 주체비료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본사기자 찍음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조국의 부강번영에 성실한 피와 땀을 바치자

푸른 숲의 설레임소리, 이 땅을 사랑하라!

구성시 일군들과 근로자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산림조성과 보호관리사업을 잘하여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여야 합니다.》

구성시의 산발들에 산림이 무성해지고있다. 지난 10여년간 산림복구를 위해 피타는 노력을 기울인 결과 북장대와 양하동, 청룡리와 남산리를 비롯하여 시안의 곳곳에 숲이 우거져 수려한 풍치를 자랑하고있다.

무성한 숲은 말한다. 자기 고향땅에 제손으로 심어가꾼 나무 한그루도 없다면 이 땅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라!

구성의 《모란봉》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수십년전 구성시를 현지지도하시면서 구주성유적과 만년사가 자리잡고있는 북장대를 평양의 모란봉처럼 아름답게 꾸릴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그날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지난 기간 구성시에서는 시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북장대를 인민의 기쁨이 넘쳐나는 문화휴식터로 훌륭히 꾸리기 위해 애써 노력하였다. 소나무와 분지나무, 싸리나무밖에 없던 이곳에 향오동나무, 살구나무, 벚나무, 잣나무와 여러가지 관상용식물들을 심고 가꾸어 산전체가 울창한 숲으로 뒤덮이게 하고 여러개의 못과 휴식터들을 만들어 명소의 풍치를 더욱 돋구도록 하였다.

오늘 풍치수려한 북장대는 시안의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의 애국주의교양에도 이바지되고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있는 인민군렬사묘를 찾고있으며 인민군대에 입대하는 청년들은 모두 이곳에서 기념식수를 하고 조국보위초소로 떠나고있다.

절세위인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이 어리여있는 유서깊은 북장대는 오늘도 애국주의교양의 거점, 인민의 문화휴식터로 솟아 빛나고있다.

한폭의 그림같은 마을

구성시 남산축산전문협동농장 종합축산분장을 찾는 사람들은 누구나 한폭의 그림같이 아름다운 마을의 풍치에 감탄을 금치 못한다.

큰가마골을 따라 흐르는 맑은 시내물이며 무성한 숲속에 묻힌 아담한 문화주택들, 즐비하게 늘어선 축사들과 가공건물들, 산기슭마다에 구름처럼 흐르는 염소를 비롯한 집짐승떼들…

지금으로부터 10여년전 몸소 이곳을 찾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망대에 오르시여 푸른 숲 우거진 분장의 전경을 부감하시면서 분장일군들과 농장원들이 나무를 많이 심고 가꾸고있는데 대해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그날의 영광을 심장마다에 간직하고 이곳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고향땅을 더욱 아름답고 살기 좋은 사회주의문화농촌으로 꾸리기 위해 많은 일을 하였다.

신젖, 치즈 등 영양가높은 여러가지 우유제품들을 많이 생산하는것과 함께 나무를 심고 가꾸는 사업을 전군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려 분장의 수림면적을 늘여나갔다. 지금 이곳에서는 자체의 힘으로 꾸린 양묘장에서 매해 잣나무와 이깔나무를 비롯한 수만그루의 나무모를 생산하여 산에 심고있으며 야산기슭에 배나무와 키낮은사과나무를 대대적으로 심고 가꾸어 그 덕을 톡톡히 보고있다. 풍요한 가을의 가슴흐뭇한 현실을 두고 이곳 사람들은 누구나 말한다.

고향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라도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애국의 마음에서 행복의 무릉도원, 사회주의리상촌이 마련되고 가꿔진다고.

수림속의 공장

지금으로부터 10여년전 어느 봄날이였다. 구성탁공장구내에 서서 구내와 주변의 산발을 오래도록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다. 공장당일군으로 갓 임명되여온 김광암동무였다. 고난의 흔적이 력력한 벌거숭이산들을 바라보는 그의 마음은 무거워졌다.

(생땅이 드러나고 흙먼지 날리는 일터에서 공장애가 싹틀리없고 일터에 대한 애착이 없는 곳에서 생산이 되면 얼마나 잘되겠는가.)

그렇게 시작된 일터의 수림화, 원림화였다. 공장주변에 1정보의 양묘장이 생겨나고 나무종자와 나무모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시작되였다.

무슨 일에서나 구체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사업을 전개하는 김광암동무는 산림복구사업도 주먹치기로 하지 않았다.

당시 시에는 오래동안 산림부문에서 일하다가 나이가 많아 일손을 놓은 전쟁로병이 있었다. 전후 불란 고지에 애솔포기를 심으며 한생을 나라의 산림을 가꾸는데 바칠 맹세를 다졌던 리정섭로인의 마음을 귀중히 여긴 김광암동무는 그를 공장의 명예종업원으로 등록했다. 그와 함께 밤을 지새며 나무심기와 관련한 지식을 배웠다. 그는 땀을 흘리며 애어린 나무모를 정성들여 가꾸고 종업원들을 나무심기에로 불러일으켰다.

달이 가고 해가 바뀌면서 공장은 옛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게 변모되여갔다. 구내의 곳곳에 살구나무, 추리나무, 포도나무가 우거져 풍치를 돋구었고 공장뒤산엔 아카시아나무와 잣나무, 밤나무와 이깔나무가 무성한 숲을 이루게 되였다. 한해에 쓰고도 남을 많은 량의 나무모들을 생산하여 시안의 여러 단위들에 보내주었으며 해마다 10여t의 살구와 추리, 포도를 수확하여 종업원들의 생활향상에 이바지하였다.

황금산, 보물산

구성시 청룡리사람들은 누구나 《군밤타령》, 《압록강 2천리》를 비롯한 노래들을 즐겨부르군한다.

민요가락을 멋들어지게 넘길때면 그들은 오래전의 가을저녁을 뜨겁게 추억해보군 한다. 그때 청룡리당일군으로 사업을 갓 시작한 최명은동무는 하루일이 끝난 저녁 노래보급사업을 조직했다. 《군밤타령》, 《압록강 2천리》 등 노래들을 보급한 뒤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노래에 나오는 참나무며 밤나무, 이깔나무들은 몇년전까지만 해도 우리 고장 어디서나 흔히 볼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나무들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방금전까지 흥그러운 분위기에 싸여있던 사람들모두가 무거운 침묵속에 잠겼다.

《나무를 심읍시다. 자기가 나서자란 고향에 나무 한그루도 제대로 심고 가꾸지 못한다면 우린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 자격조차 없습니다.》

얼마후 리에서는 산림복구전투의 된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농장자체의 힘으로 1.5정보의 양묘장을 꾸리고 책임성이 높은 농장원들을 선발하여 세웅소나무, 수유나무를 비롯한 수종이 좋은 나무모들을 대대적으로 키우도록 했다. 자기 집 터밭에서 알곡이나 남새가 아니라 나무모를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청룡리의 산발들은 한해가 다르게 푸르러갔다. 나무를 심어 10년째 되는 해부터는 무성한 산림이 곳곳마다 펼쳐졌다. 오늘 청룡리의 수백정보 산림은 온갖 보물들로 꽉 차있다. 해마다 노루며 산토끼가 뛰여노는 산에서 분지와 참나무버섯, 밤과 도토리열매를 따들이는 기쁨이 한껏 넘쳐난다. 20년이라는 세월속에 농장의 모든 산들이 말그대로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된것이다.

본사기자 리 납 호

애국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제일먼저 받은 인사

양력설날 아침 순안구역 신성동 채춘빈가정에 웃음꽃이 활짝 피여났다. 부모들의 건강장수를 바라며 자식들이 모두 모여왔던것이다.

자손들을 대견히 바라보는 시아버지의 얼굴에 한줄기 그늘이 비끼지 않는가 하여 남몰래 마음을 쓰며 새벽바람으로 달려온 막내며느리 한옥영동무였다. 형제들이 다 모여 흥성이는 자리에 남편만 빠진것이 민망스러워 고개를 숙이는데 채로인의 부름소리가 들려왔다.

《막내새아기야, 올해에도 봄이 아버지한테서 제일먼저 새해인사를 받았다. 먼곳에 가서도 부모를 잊지 않는 그 마음이 참 고맙구나.》

한옥영동무는 눈앞이 흐려왔다. 얼마전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장에 나가있는 남편 채철수동무에게서 받은 전화가 정깊이 되새겨졌다.

《새해에 부모님들에게 인사를 잘해주오. 내 걱정은 말구.》…

그러고도 제일먼저 부모님들에게 새해인사를 한 남편이다. 그러는 그의 귀전에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우리 막내가 소대장으로 일하는 조선대양총회사돌격대 소대가 토지개량재생산에서 또 1등을 했단다. 어련할라구. 예로부터 부모를 잘 모실줄 아는 사람이 나라에 충정한다고 했다. 애국심이란 허공에서 툭 떨어지는게 아니거던.》

주인된 자각

얼마전이였다.

만포시 강안동 20인민반 반장 박순옥동무는 가족들과 함께 여러가지 공구들을 들고 집을 나섰다. 아빠트주변의 불비한 곳들을 손질하려는것이였다. 현관문을 나서던 그들은 자기들을 찾는 소리에 걸음을 멈추었다. 돌아보니 같은 인민반의 주민들이였는데 그들의 손에도 공구들이 쥐여져있었다.

박순옥동무는 미소를 지으며 급히 그들에게로 다가갔다.

《오늘은 일요일이여서 다들 푹 쉬라고 알릴 생각을 안했는데…》

그의 말을 밀막으며 한 주민이 손을 내흔들었다.

《인민반의 주인이 뭐 반장동무 한 사람입니까. 우리모두가 주인이지요.》

그의 말을 수긍하며 다른 한 주민이 입을 열었다.

《당에서 마련해준 멋쟁이 살림집에서 사는 우리들이 관리사업이야 왜 바로 못하겠나요. 이게 다 우리들자신을 위한 일이 아닙니까.》

교마왔다. 그 마음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인민반원들과 함께 아빠트주변을 깨끗이 정리하며 박순옥동무는 그려보았다.

모두가 이런 주인된 자각을 안고 꾸려가는 우리 마을, 우리 조국의 밝은 모습을.

거름

새해농사차비로 부글부글 끓고있던 지난 1월 어느날 저녁 집으로 향하던 문덕군 립석협동농장 제6작업반장 송숙희동무는 문득 가던 길을 멈추었다.

누군가 길건너편의 5분조 거름더미로 다가가 삼태기를 기울이는 모습이 눈에 띄였던것이다.

작업반원들이 집으로 돌아간 뒤라 송숙희동무는 의아한 생각이 들어 그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다가가보니 그는 5분조 농장원 리영애동무였다. 작업반장을 알아본 리영애동무는 어쭙은 기색으로 말했다.

《길가에 흘린 거름을 모아둔게 퍼그나 되길래…》

순간 송숙희동무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제서야 일터로 오갈 때나 작업의 쉴참에도 리영애동무의 손에서 늘 삼태기가 떨어질줄 모르던 사연을 알수 있었다.

한 줌

길가에 흘린 거름 한줌도 귀중히 여기는 소중한 마음!

송숙희동무에게는 언제나 분조포전을 알뜰히 가꾸는데서 남보다 앞장서는 리영애동무의 모습이 더더욱 미덥게 안겨왔다.

길가에 떨어진 거름 한줌도 나라쌀독을 채우는 귀중한 밀거름으로 보고 아낄줄 아는 그것이 이 땅을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하는 참된 마음이 아니랴 하는 생각으로 가슴은 뜨거워졌다.

본사기자

실농군들의 보람

‖ 평산군 청학협동농장 제3작업반원들 ‖

나는 조국을 위해 무엇을 바쳤는가?

이것은 매 인간이 조국앞에 지닌 량심과 의리를 비추어보게 하는 실천의 기준으로, 시대의 물음으로 되고있다.

작업반장 리재준동무를 비롯한 평산군 청학협동농장 제3작업반원들이 이 물음에 당당하게 대답해나서고있다.

지난 10여년간 작업반에서는 해마다 알곡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였으며 부림소를 비롯한 집짐승도 많이 길러 그 덕을 단단히 보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힘찬 투쟁을 벌려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농업생산과 전반적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위대한 전환을 가져와야 합니다.》

10여년전까지만 하여도 이곳 작업반의 형편은 지금과 같지 않았다.

고난의 행군의 후과가 작업반의 곳곳에 여전히 남아있었다.

많은 면적의 포전들이 산경사지들과 골짜기를 따라 배치되여있어 기계농사가 불리한데다가 부림소를 비롯한 집짐승마리수도 적었으며 알곡수확고도 그리 높지 못했다.

리재준동무가 작업반장으로 온 다음부터 작업반의 모든것이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해마다 장마철이면 개울물이 넘어나 농경지와 곡식이 손실되는것은 어쩔수 없는 일로 되여있었지만 리재준동무는 작업반원들을 불러일으켜 개울을 정리하고 석축을 하여 포전과 농작물을 보호하였으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밭에 있는 돌을 추어내기 위한 사업도 근기있게 내밀었다.

리재준동무는 늘 밭에 나가 살다싶이 하였다. 그가 언제 밭으로 나가고 언제 집으로 들어오는지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았다.

장마철에 비가 오는 날이면 그는 큰물에 곡식이 상할세라 밤새 발머리를 지켰고 강냉이밭도 여러벌김까지 매고서야 마음을 놓군 하였다.

그라고 농사일을 타고난것은 아니였다. 먼 후날 조국과 후대들앞에 자신의 량심을 떳떳이 총화해야 한다는 오직 하나의 생각이 리재준동무에게 지칠줄 모르는 힘과 열정을 더해주었다.

농사를 잘 짓자면 뭐니뭐니 해도 거름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한 리재준동무는 그를 위해 집짐승기르기에도 힘을 넣었다.

때로는 부림소관리공이 되기도 하면서 그는 작업반원들이 부림소관리에 진심을 바치도록 하였다.

그전에는 두마리밖에 안되던 부림소가 10여마리로 늘어나 밭갈이를 비롯한 여러가지 영농작업을 마음먹은대로 내밀수 있게 되였고 부림소와 함께 돼지와 닭을 비롯한 집짐승들도 많아져 해마다 수백t의 질좋은 거름이 생산되여 알곡생산에 리용되고있다.

그렇게 생산된 거름이 포전마다에 무겁게 쌓이고 그것이 그대로 풍요한 가을의 낟알더미로 될 때면 리재준동무와 작업반원들의 얼굴에는 저도모르게 웃음꽃이 피군 한다.

그것은 이 땅에 진심을 묻어가는 실농군들만이 느낄수 있는 로동의 보람이고 희열이였다.

작업반뒤산에 해마다 심어가꾼 밤나무림은 작업반의 자랑으로 되고있다.

오늘도 이곳 작업반원들은 조국의 부강번영에 성실한 땀을 바쳐간다. 본사기자 전 성 남 찍음

협동조합에서— 연탄가구생산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가구들을 생산하기 위해

전진의 보폭과 믿거름

중앙과학기술통보사 부장 박사 황금희동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애국의 마음은 조국과 인민을 위한 실천활동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1983년 11월 황금희동무는 중앙과학기술통보사 기자로 일하게 되였다. 그는 지나온 나날을 돌이켜보았다. 전쟁로병부부의 가정에서 태여나 부럼없이 자라며 배우던 일, 학생의 본분을 지켜 학습도 열심히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여 김일성소년영예상을 받아안던 일 그리고 김일성종합대학에 입학하여 공부하던 나날이며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를 지니던 일…

참으로 세상의 모든 행복을 자신이 다 받아안은것만 같았다. 그는 고마운 나라의 은덕에 보답할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였다.

인민군군관과 가정을 이루고 두 자식을 키우느라 가정적부담이 많을 때에도 그는 맡은 초소를 비우지 않았다. 10년이 지난 후 정보봉사조직을 맡은 부서의 일군으로 사업하게 된 그는 몹시 바쁜 나날을 보내였다. 나라의 과학기술사업에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고계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어깨에 실린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일념이 그의 심장속에 꽉 차있었다. 그는 맡은 일에 사색과 탐구를 거듭하였다.

어느 한 도에 자리잡고있는 과학기술통보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단위를 과학기술보급의 거점답게 꾸리기 위한 사업에서 애를 먹고있을 때였다. 그는 곧 현지로 떠날 차비를 하였다. 일군들이 교통조건도 불편한데 해결할 문제가 있으면 전화로 해도 되지 않겠는가고 권고하자 그는 머리를 저었다.

《우리가 자기의 임무를 잊고 한걸음이라도 늦추면 나라의 과학기술이 그만큼 뒤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현지에 도착한 그는 단위의 일군들과 걸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도를 진지하게 토의하였다. 도의 책임일군들을 만나 통보소의 실태와 전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도에서 이 단위를 적극 도와주면 인민경제발전에 얼마나 큰 도움을 줄수 있겠는가고 절절히 호소하였다. 그후 과학기술보급의 거점답게 손색없이 꾸려진 이곳 통보소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단위들을 비롯한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의 현대화, 정보화에 크게 기여하게 되였다.

그는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애로와 난관이 겹쳐들었으나 순간의 주저나 답보를 모르고 완강하게 일을 내밀었다.

전국적인 콤퓨터망이 형성된데 토대하여 부서 성원들과 함께 발전하는 현실에 맞는 선진적인 봉사방법들을 연구하였다. 집중련속봉사, 문제별자료기지봉사 등이 새로 창안도입되게 되였다. 그는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통보소들의 일군들이 자기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었다.

몇해전 1월 함경남도과학기술통보소를 지역과학기술정보봉사의 거점답게 본보기로 꾸리는 문제가 제기되였을 때였다. 또다시 먼길을 떠나는 그를 둘째딸이 막아섰다. 날씨도 찬데 불편한 몸으로 안된다고.

그러는 딸에게 황금희동무는 제 한몸, 제 가정만 생각한다면 나라일은 어떻게 되겠는가고 하며 길을 떠났다.

그렇게 떠난 길에 바친 열정과 노력이 열매를 맺어 함경남도과학기술통보소가 오늘은 과학기술통보출판물보급실, 자료기지실, 원격영상회의실, 원격대학강의실 등 다양한 봉사실을 갖추고 자문봉사, 기술중개봉사 등을 진행할수 있는 지역과학기술정보봉사의 거점으로 꾸려지게 되였던것이다.

그는 늘 사람들에게 말하군 한다. 애국은 자기 일에 대한 량심이고 열정이고 헌신이라고.

본사기자 현 경 철

로씨야련방대사관 성원들 해방탑과 쏘련군렬사들의 묘에 화환 진정

【평양 2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조국수호자의 날에 즈음하여 주조 로씨야련방대사관 성원들이 23일 해방탑에 화환을 진정하였다.

해방탑에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들이 서있었다.

화환진정에는 알렉싼드르 마께고라특명전권대사, 알렉쎄이 바르뚜쏘브무관을 비롯한 로씨야련방대사관 성원들과 여러 나라 대사관 무관들이 참가하였다.

화환진정곡이 울리는 가운데 로씨야련방대사관의 명의로 된 화환이 해방탑에 진정되였다.

참가자들은 쏘련군렬사들을 추모하여 묵상한 다음 탑을 돌아보았다.

이어 로씨야대사관 성원들은 사동구역에 있는 쏘련군렬사들의 묘에 화환과 꽃송이들을 진정하였다.

한편 지방에 있는 쏘련군동상, 해방탑, 쏘련군추모탑에 로씨야대사관 성원들이 꽃다발들을 진정하였다.

조국수호자의 날에 즈음하여 로씨야련방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 무관 연회 마련

【평양 2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조국수호자의 날에 즈음하여 알렉싼드르 마께고라 주조 로씨야련방 특명전권대사와 알렉쎄이 바르뚜쏘브 대사관 무관이 23일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노광철 조선인민군 부총참모장, 조선인민군 장령, 군관들, 관계부문 일군들과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 대사관 무관들이 초대되였다.

로씨야련방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회참가자들은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님의 건강을 축원하여, 존경하는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대통령의 건강을 축원하여, 전통적인 조로친선관계의 끊임없는 강화발전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일행 울란바따르 도착

【평양 2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몽골을 방문하기 위해 리수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과 일행이 22일 울란바따르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몽골 외무성 부상, 주조 몽골 특명전권대사, 외무성관계자들과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맞이하였다.

로씨야방문 우리 나라 정부경제대표단 출발

【평양 2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로씨야를 방문하기 위해 리룡남대외경제상을 단장으로 하는 우리 나라 정부경제대표단이 23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비행장에서 리광근 대외경제성 부상과 알렉싼드르 마께고라 주조 로씨야련방 특명전권대사가 전송하였다.

현대화의 지름길을 찾아

청진제강소 일군들과 기술자, 기능공들

지난해 11월 함경남도에서 진행된 지역과학기술정보봉사의 거점답게 꾸려진 도과학기술통보소에 대한 전국적인 보여주기사업은 참가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모두가 인민경제의 현대화,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다그치기 위한 사업에서 자기들이 맡은 임무의 중요성을 다시금 자각하며 분발할 결의를 가다듬었다.

그러는 참가자들을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는 한 녀성이 있었다. 그가 바로 이 보여주기사업에 헌신의 땀을 바친 황금희동무였다. 그는 어떤 녀성인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생산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구체적조건과 과학적타산에 기초하여 조직하고 일관성있게 내밀어야 합니다.》

청진제강소에서 자체의 기술력량에 의거하여 회전로들의 현대화공사를 힘있게 내밀고있다.

제강소에서는 기술자, 로동자들의 창조능력을 키워주고 그들의 창의창발성을 적극 불러일으켜 현대화공사에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기술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가고있다.

현대화공사가 시작되던 초기에만도 제강소의 일부 일군들속에서는 어려운 기술적문제들이 제기되면 과학연구단위의 연구사들부터 쳐다보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

석탄의 연소효률을 높이는 문제가 제기되였을 때였다. 이 문제는 회전로현대화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중요한 기술적과제였다. 점토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원료들을 첨가하고 시험해보았지만 이렇다할 전진이 없었다.

일군들은 연구사들을 초청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긴급한 연구과제들이 덧쌓여 인차 갈수 없다는 편락이 왔다.

그러던 어느날 뜻밖의 소식이 날아왔다. 일군들은 서둘러 시험현장으로 달려갔다. 자체로 연구한 점결계를 리용하여 석탄의 원단위소비기준을 낮추었을뿐아니라 제품의 질을 높인 현실앞에서 일군들이 받은 충격은 컸다. 그 주인공들은 다름아닌 현장기술자들과 공무부문 로동자들이였다.

제강소일군들은 현대화실현의 빠른 지름길은 당정책대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는데 있다는것을 다시금 깊이 느끼게 되였다. 자체의 기술력량을 튼튼히 꾸리는데 응당한 힘을 넣었다. 기술자들을 대담하게 믿고 연구과제를 주는것과 함께 연구사업조건을 잘 보장해주어 창조의 나래를 한껏 펼치게 하였다.

이와 함께 제강소의 앞날을 내다보고 기능공들을 대학으로 떠밀었다. 또한 전국적인 과학기술축전을 비롯하여 여러 계기를 통해 제강소안에 과학탐구의 열풍이 더욱 세차게 일게 하였다.

오늘 제강소기술집단은 그 어떤 과학기술적문제도 자체의 힘으로 척척 풀어나갈수 있는 능력있고 경험있는 과학기술력량을 가지고있다.

최근에만도 수십건에 달하는 프로그람들을 자체로 연구개발하여 여러 생산공정들과 구간팡수직로의 현대화를 실현하였다. 그리고 우리 식의 주체철생산체계를 확립할수 있는 확고한 과학기술적담보를 마련하였다.

지금 원격강의실과 과학기술도서실을 보다 현대적으로 꾸려 기술자, 기능공들의 과학기술수준을 한계단 높이기 위한 사업을 줄기차게 벌리고있다.

이곳 일군들과 기술자, 기능공들은 현대화의 지름길은 누구나 과학기술의 주인이 되여 자기 일터에서 최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려나가는데 있다고 한결같이 이야기하고있다.

특파기자 리 은 남

독자의 편지 온 마을이 자랑하는 할머니

우리 인민반에는 복할머니라고 불리우는 박옥성녀성이 있습니다. 할머니의 집벽면에는 그의 남편과 손자가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찍은 기념사진이 정히 모셔져있습니다. 게다가 세 아들과 딸 그리고 며느리, 사위들도 모두 대학졸업생이여서 이웃들이 여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박옥성할머니는 그것이 어찌 자기 혼자만이 누리는 복이라고 하겠는가고,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 우리 원수님을 높이 모시였기때문에 온 나라 인민들 누구나 받아안는 사랑이고 은정이라고 하면서 고마운 당과 조국을 받들어 좋은 일을 더 많이 하자고 이야기하군 합니다.

할머니는 말로써가 아니라 스스로 좋은 일을 많이 하여 인민반은 물론 온 동의 존경을 받고있습니다. 지난 몇해동안 희천발전소건설장을 비롯해서 사회주의건설장들과 수도의 중요대상공사장들에 수천켤레의 장갑을 만들어 보내준 할머니입니다.

이제는 여든고개를 바라보지만 쉬지 않고 매일매일 장갑을 만들고 있는 할머니를 볼 때마다 누구나 감동을 금치 못하고있습니다.

얼마전 할머니는 우리 인민반원들이 앞장서서 많은 장갑을 만들어 건설자들에게 보내주자고 호소하였습니다. 한생을 애국에 사는 이런 할머니를 널리 자랑하고싶습니다.

형제산구역 서포3동 3인민반 김 영 실

재능있는 예술인후비육성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바쳐가고있다.
—2.16강계고등예술전문학교에서— 본사기자 김 광 혁 찍음

새 세대들속에서 5대교양을 강화하여 참다운 선군혁명투사들로 준비시키자

교수경연을 통하여 무엇을 해결하였는가

김 형 직 사 범 대 학 에 서

얼마전 김형직사범대학에서는 사회정치사상과목교원들의 교수경연이 진행되였다.

뜻깊은 광명성절을 앞두고 진행된 교수경연은 대학의 일군들과 교원들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속에 매우 의의있게 진행되였다.

해마다 진행하는 교수경연을 통하여 위대성교양을 더욱 심화시켜나가기 위한 좋은 경험들이 창조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으로 간직하자면 수령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하여야 합니다.》

지난 기간 대학에서는 백두산위인들의 위대성을 학생들에게 깊이 심어주기 위한 교수교양사업을 꾸준히 벌려왔다.

여기에서 해마다 뜻깊은 2월에 진행하군 하는 사회정치사상과목교원들의 교수경연은 자못 큰 의의를 가지였다.

올해 대학에서는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개선하고 철저히 구현해나가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또다시 교수경연을 조직하였다.

교수방법을 개선하는데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들을 공고히 하면서 학생들의 지적능력과 응용능력을 높일수 있는 교수과정과 교수수단, 수법들을 부단히 창조하고 발전시키자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그리고 여기에서 창조된 우수한 교수방법들을 일반화하는데도 있었다.

그렇다면 사회정치사상과목 교원들의 경우에는 어디에 힘을 넣어야 하는가.

명백히 위대성교양을 교수에 철저히 구현하는것이다.

위대성교양을 비롯하여 5대교양을 강화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의도를 깊이 파악하고 교수에 구현하여 위대성위주의 교육을 진행하는 사회정치사상과목들의 폭과 깊이를 어떻게 보장하였는가 하는것이 이번 경연에서 중시한 문제였다.

대학에서는 먼저 강좌별, 학부별교수경연을 진행하고 우수한 교원들을 대학적인 경연에 출연시키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강좌들에서 교원들이 집체적토의를 거듭하면서 강의안작성에 큰 힘을 넣게 되였다.

강의도 하나의 예술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강의를 방법론있게 이끌어가는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그러자면 교수과정을 잘 설계하는데 응당한 힘을 넣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강의시간에 학생들의 심리를 틀어잡을수 있도록 내용을 과학적으로 체계성있게 구성하고 교수과정의 매 단계들에서 생동한 자료들을 잘 배합하여 인식효과를 최대한 높일수 있겠는가. 교원들의 사색과 탐구가 여기에 바쳐졌다.

모두가 신문과 도서 등을 통하여 풍부한 자료들을 얻어내고 그것들을 기본내용에 충실히 복종시켜 강의안들을 작성하고 직관수단들을 완성하는데 품을 넣었다.

대학에서 교수경연을 준비하면서 또 한가지 중시한것은 과목별 특성을 잘 살리도록 한것이다.

과목마다 자기의 특성이 있다. 실례로 로작과목들에서는 절세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에 대한 교수를 통하여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리론의 위대성을 가르치며 혁명력사과목들에서는 력사자료를 되살리면서 절세위인들의 령도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시켜주게 된다.

대학에서는 이렇게 모든 사회정치사상과목교원들이 자기 과목의 특성에 맞게 경연을 위한 교수준비를 빈틈없이 하게 하였다.

이 과정에 사상리론과목들에서는 원리와 체계를 틀어쥐고 중점적인 교육을 줄수 있게 강의안들이 작성되게 되였다. 특히 로작들의 원문을 놓고 명제의 구절구절을 따져가면서 절세위인들의 사상리론의 독창성과 위대성을 원리적으로 체득시켜주는 교수방법들은 일군들과 교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혁명력사과목 교원들은 학생들이 예습과제를 수행한데 기초하여 절세위인들의 령도의 위대성을 자체로 도출해내도록 이끌어주는 우수한 교수방법들을 내놓을수 있었다.

이번 경연에서 력사학부 김철완, 철학부 류승렬동무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교수지도과 지도교원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도록 한것도 이번 경연에서 성과를 달성하게 한 중요한 요인이였다.

《경연에 출연한 모든 교원들이 절세위인들의 위대성을 뚜렷이 부각시킬수 있게 강의준비를 잘하였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하여 사회정치사상과목들의 질적수준이 한단계 비약하였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교수경연의 결과를 두고 교수지도과 지도교원인 로룡택동무는 만족을 표시하였다.

이번 교수경연이 응당한 성과를 거두게 된것은 주체의 사회주의교육사상을 구현한 교육과학의 원리에 철저히 토대하여 교수준비를 실속있게 짜고든데 있다. 대학에서 지난 기간 교육과학연구사업을 심화시킨 결과에 이룩된 성과들이 교수에 안받침되여 위대성교양에서도 큰 은을 나타낼수 있었던것이다.

교수경연을 통하여 사회정치사상과목교원들의 자질이 비상히 높아졌고 시대의 요구에 맞게 학생들을 절세위인들의 위대성으로 튼튼히 무장시켜나갈수 있게 년간교수준비가 높은 수준에서 완성되게 되였다.

지금 대학에서는 사회정치사상과목에서 위대성위주의 교수의 본보기를 창조하기 위한 사업과 교수경연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대학적으로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이 꾸준히 벌어지고있다.

위대성교양을 비롯하여 5대교양에 화력을 집중할데 대한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를 높이 받들고 학생들을 수령의 위대성을 뼈와 살에 새기고 수령의 사상과업적을 옹호고수하는 철석같은 신념을 지닌 선군시대의 청년전위들로 키워나갈 이 대학 교육자들의 뜨거운 열의로 온 대학이 끓고있다.

본사기자 공 로 혁

애국의 참뜻을 심어주는 교정

남 포 수 산 대 학 에 서

남포수산대학의 면모가 일신되고있다. 본청사와 실습장이 훌륭히 개건되였고 교양마당이 새롭게 꾸려졌으며 교사들의 개건사업도 꾸준히 진행되고있다.

이러한 성과들은 참신한 김정일애국주의 교양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김정일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인민군군인들과 청소년학생들이 누구나다 김정일애국주의의 참뜻을 잘 알고 그것을 가슴깊이 간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대학에는 모든 강좌마다 김정일애국주의교양자료집을 갖추어놓고있다.

여기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빛나는 생애의 전기간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후대들을 위하여 바쳐오신 헌신과 로고의 날들을 전하는 구체적인 자료들이 수록되여있다. 교원들의 고심어린 노력이 비낀 자료집이다.

하나하나의 자료를 얻기 위해 수많은 도서를 탐독하고 출판물들을 연구하며 탐구를 거듭해온 그 나날들은 교육자들부터 김정일애국주의를 신념으로 간직해나가는 과정이였다.

자료집을 한장한장 번져갈수록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헤쳐오신 선군장정의 날과 달들이 가슴뜨겁게 돌이켜지고 내 조국을 지켜주신 우리 장군님의 애국의 세계가 얼마나 숭고한것이였는가 하는데 대하여 깊이 생각하게 된다.

이렇게 완성한 김정일애국주의 교양자료집은 교원들의 교수교양사업에 큰 도움을 주고있다.

수산부문에 깃들어있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과 황금해의 새 력사를 펼쳐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업적을 통한 교양사업은 나라의 수산업발전을 떠메고나가야 할 학생들의 심금을 그 얼마나 뜨겁게 울려주었던가.

대학에서는 교실마다 게시한 현지지도일력을 통한 교양, 강의 5분간을 리용한 교양 등 여러가지 형식과 계기를 통하여 김정일애국주의교양을 폭넓게, 원리적으로 깊이있게 해나가고있다.

해마다 뜻깊은 2월에 열리군하는 교수의 당정책화자료전시회는 교정에 탐구의 열풍을 일으키고있다.

그것은 그대로 교수교양사업에서의 혁신적성과로 이어지고있다.

김정일애국주의로 심장을 불태우며 올해의 교육사업과 과학연구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안아올 대학일군들과 교육자들의 드높은 열의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결의목표들에도 그대로 어려있다.

조국땅 그 어디에나 사회주의 바다향기가 넘쳐나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원대한 구상을 받들어 첨단과학기술을 개척하고 정보화를 적극 다그쳐 과학적인 수산자원조사방법과 어장탐색지원체계를 확립하며 선진적인 어로방법과 바다가양식기술을 도입하는 등 올해 대학이 내세운 목표는 방대하다.

수종이 좋은 나무들로 대학을 수림화, 원림화, 과수원화하며 새 품종의 잔디로 구내를 단장할 계획들도 세워졌다.

래일의 황금해정복자들에게 숭고한 애국의 뜻을 심장깊이 새겨주는 참신한 교양사업과 더불어 교정의 하루하루는 미래를 향해 뜨겁게 흐르고있다.

본사기자

백두의 칼바람을 맞으며 신념의 강자들로

평 성 의 학 대 학 에 서

우리와 만난 평성의학대학의 한 일군이 펼쳐보이는 답사일지에는 지난 20여년간 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이 백두산밀영고향집으로의 답사를 조직하고 이 사업이 실지 교양적의의가 있게 진행되도록 모든 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었다.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들을 돌아보면서 특히 백두산밀영고향집을 찾아가는 과정에 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은 수령의 위대성과 불멸의 업적을 심장깊이 체득하고 혁명선렬들이 발휘한 충실성의 숭고한 모범을 본받아 당과 수령에 대한 백옥같은 충정으로 삶을 빛내여나갈 불타는 신념의 맹세를 굳게 다지군 하였다.

돌아올 때 그들이 떠온 소백수의 맑은 물은 교직원, 학생들의 가슴가슴을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으로 불태워주었고 답사자들의 토론은 사람들에게 깊은 여운을 안겨주었다.

해마다 답사를 조직하면서 대학에서 성의껏 마련하여 보내준 백두산밀영고향집주변관리사업에 필요한 관리도구들과 그곳 관리성원들에게 필요한 생활용품들은 11만 5 000여점이나 된다.

지난 1월 백두산밀영고향집에로의 답사길에 올랐던 리광선, 박철진동무를 비롯한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은 이번에 백두의 칼바람을 맞으며 정말 많은 생각을 하였다고, 지난해 몸소 눈보라를 맞으시며 백두산에 오르시였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거룩한 자욱을 가슴에 소중히 안아볼수록 최후승리의 그날까지 혁명의 한길을 끝까지 걸어갈 신념으로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랐다고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이렇듯 백두의 칼바람과 더불어 신념교양이 실속있게 벌어지고있는 교정이여서 지난해 6월에는 고려의학부의 리철민을 비롯한 여러명의 학생들이 숙천군 열두삼천농장의 살림집들에 화재가 발생하자 서슴없이 뛰여들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태양상초상화를 안전하게 모셔내오는 수령결사옹위정신을 높이 발휘할수 있었다.

백두의 칼바람은 혁명가들에게는 혁명적신념을 더 굳게 벼려주고 모든 기적과 승리를 가져다주는 따스한 바람이라고 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가슴에 새기며 모든 교직원, 학생들이 신념의 강자들로 성장해가고있다고 말하는 대학일군의 얼굴에는 남다른 긍지가 어리여있었다.

그들의 가슴마다에 혁명신념을 더욱 굳게 다져준 백두의 눈보라길이 금시 눈앞에 어려오는듯싶어 우리의 가슴은 저도모르게 후더워올랐다.

또 한분의 백두산장군께서 헤치시였고 위대한 그이의 뒤를 이어 온 나라 천만군민이 필승의 신념안고 발자욱 새겨가는 백두의 행군길우에 반드시 최후승리의 려명이 붉게 타오르리라는 확신을 안고 교정을 나서는 우리의 눈앞에 의미심장하게 어려왔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조선혁명을 끌까지 완수하자라는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에 제시된 뜻깊은 구호가.

본사기자 김 명 훈

수첩은 작아도 얻는것은 크다

중구역 동안고급중학교에서

중구역 동안고급중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한 도덕교양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참신하게 벌려나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청소년학생들에 대한 도덕교양도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을 밀접히 결합하여 진행하여야 큰 은을 낼수 있습니다.》

학교의 교원들은 학생들에 대한 도덕교양을 가정교육과 밀접히 결합하여 진행하기 위해 자그마한 수첩을 리용하고있다. 거기에는 학생들의 도덕적측면을 분석한 내용들이 일별로 구체적으로 적혀있다.

례하면 어느날에는 학교로 오가던 길에 할머니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아름다운 소행을 발휘하였고 또 어느날에는 동무들사이 언어례절을 잘 못 지켰다는 등의 우결함들에 대한 내용이다.

이런 내용이 수첩을 통해 학부형들에게 전달되고있다.

그러면 학교에서 이 수첩을 통해 얻는것은 무엇인가.

집에서 새는 바가지 들에 나가도 샌다는 속담도 있지만 가정교양은 자식들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것이다. 하지만 학부형들속에는 직장일로 늘 바쁘다는 구실로 자식들에 대한 도덕교양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다. 성적증이나 시험지를 보면서 실력문제에는 원심을 쓰면서도 자식들의 언행이나 품행이 어떤가에 대해서는 관심을 덜 돌리는 부모들도 있는것이다.

그런데 이 수첩을 받아보면서부터 크게 달라졌다. 누구를 막론하고 부모로서의 책임감을 더욱 깊이 자각하고 자식들에 대한 도덕교양에 보다 큰 품을 넣고있다. 자식들을 건전하고 대바른 사람으로 키우는것이 부모들의 한결같은 소원일진대 이것을 스쳐지나보낼 부모가 어디에 있겠는가.

물론 교원이 매일같이 수십명이나 되는 학생들의 도덕적우결함을 분석한다는것은 사실 쉽지는 않다. 하지만 그 작은 수첩을 통해 큰것을 얻을수 있기에 이 학교의 교원들은 이 사업을 중단없이 내밀고있다.

이렇게 되니 이미전부터 학교에서 진행하던 과목별수업들은 물론 다매체편집물, 교양마당과 문답식경연 등을 통한 도덕교양사업의 실효가 비할바없이 높아졌다.

학생들이 동무들속에서 발휘되는 아름다운 소행들을 찾아내여 글로 적어 넣어두는 자그마한 함의 리용률이 높아진것을 보면 그것을 잘 알수 있다.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이 밀접히 결합되니 학생들속에서는 옳고그른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판별할줄 아는 도덕적평가능력이 높아졌으며 그것은 결국 이 함의 리용률을 더욱 높여주고있는것이다.

교장 서영숙동무와 청년동맹일군 리학성동무를 비롯한 학교의 교육자들은 오늘도 학교교육과 가정교육을 밀접히 결합시켜주는 한 고리인 그 자그마한 수첩을 통해 학생들에 대한 도덕교양사업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있다.

본사기자 한 경 철

투철한 반제계급의식을 지니고 사회주의진지를 철벽으로 지켜갈 선군혁명투사들로 억세게 준비해가는 청년학생들 －신천박물관에서－ 본사기자 찍음

증산의 불길을 높여준 집중정치사업

개천탄광 초급당위원회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와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를 높이 받들고 정치사업을 집중적으로 벌려 막장과 일터마다에서 석탄증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도록 하고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모든 일군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와 공동구호를 환히 꿰든 다음 막장에 들어가 정치사업을 집중적으로 벌리도록 하고있다.

얼마전 서재갱과 류동갱, 종합중대에 내려간 초급당일군들인 박영순, 리유근동무들은 애국충정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올해 석탄생산계획을 넘쳐수행할데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해설담화를 진행하였으며 공동구호 《탄부들이여!

석탄산의 높이이자 전력증산이며 경제강국건설의 속도이다.

석탄증산으로 당을 받들자!》에 대하여 해설해주었다.

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현지지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며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을 진두에서 지휘하시는데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자료들을 가지고 해설해준 다음 경제강국건설의 전초선을 지켜선 로동계급답게 원수님의 혁명시간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순간순간을 불같이 살자고 호소하였다.

한편 동발나무생산전투장에 달려나간 지배인 장영남동무는 마이크를 틀어잡고 종업원들의 심장을 뜨겁게 울려주는 정치사업을 진행하였으며 공무직장에 내려간 기사장 김광천동무도 로동자들이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탄차와 부속품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도록 정치사업을 힘있게 들이대였다.

일군들이 한두개 대상씩 맡아 집중적으로 정치사업을 벌려나가니 탄부들은 당의 숨결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총진군길을 힘차게 다그치고있다.

그리하여 갱막장 그 어디에서나 석탄증산의 불길은 더욱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로농통신원 전 순 희

석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한 로력혁신자들을 열렬히 축하! －제남탄광 2갱에서－ 본사기자 리 명 남 찍음

평범한 나날에 보여준 수령결사옹위의 참모습

구월수산협동조합 일군인 장봉준동무와 안강망선 《ㅁ－안－2909》호 선원들에 대한 이야기

수령결사옹위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삶의 신조이며 드림없는 실천이다.

우리는 사나운 풍랑이 생명을 위협하는 위급한 속에서도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초상화를 안전하게 보위한 구월수산협동조합 일군인 장봉준동무와 안강망선 《ㅁ－안－2909》호 선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이 지닌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이 얼마나 고결한가를 다시금 돌이켜보게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이 지닌 수령결사옹위정신은 오랜 혁명투쟁과정에 실지체험을 통하여 수령은 조국과 혁명의 운명이고 미래이라는것을 심장으로 절감한데 기초하여 신념과 의지, 량심과 도덕으로 굳어지고 삶의 요구로 체질화, 생활화된것입니다.》

지난해 10월 24일, 이날도 림명길동무를 비롯한 구월수산협동조합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이른새벽부터 어장으로 향하였다.

황금해의 력사를 창조하고있는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모범을 본받아 적극적인 어로전을 벌려온 그들속에는 안강망선 《ㅁ－안－2909》호 선원들도 있었다.

바람 한점없는 잔잔한 바다날씨는 선원들의 가슴을 절로 부풀게 하였다.

푸른 바다를 헤가르며 항행하던 안강망선 《ㅁ－안－2909》호가 어장에 도착한것은 영산포구를 떠난지 한시간반가량 되여서였다.

민첩한 동작으로 자리를 차지한 선원들은 승선지도를 맡은 생산부원 장봉준동무와 선장 홍순필동무의 지휘밑에 일제히 어로작업에 착수하였다.

가까운 곳에는 함께 나온 안강망선 《ㅁ－안－2910》호도 있었다.

두 배의 선원들은 보란듯이 승벽내기로 물고기잡이를 다그치고있었다.

선원들이 오전작업에 이어 오후작업을 거의 마감할 때였다.

갑자기 바다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점차 물결이 높아졌다.

《작업철수!》

조타실에서 바다를 감시하던 장봉준동무의 지시에 따라 선원들은 재빨리 그물을 걷기 시작하였다.

그물을 걷어올리고 닻을 올리려 하였으나 생각대로 잘되지 않았다.

닻이 너무 깊이 박혀 한동안이 지나서야 닻을 들어올린 배가 출발한 때는 바람이 퍼그나 더 세진 뒤였다.

바람속도는 초당 10여m!

집채같은 파도는 전진하는 배를 당장이라도 집어삼킬듯 길길이 날뛰였다. 배전을 넘는 파도로 하여 어창에 물이 고이기 시작하였다.

《선원들은 물을 풀것!》 하는 선장의 구령소리에 김덕남, 황상준동무들이 사나운 풍랑속에서 결사적으로 물을 퍼내기 시작하였다.

한바께쯔, 두바께쯔…

시간이 흐를수록 날은 어두워지고 선원들은 맥이 점점 진해갔다. 대화기마저 파손되여 앞서 떠난 안강망선 《ㅁ－안－2910》호에도 련락을 할수 없었다.

가까운 곳에는 함께 나온 안강망선 《ㅁ－안－2910》호도 있었다.

두 배의 선원들은 보란듯이 승벽내기로 물고기잡이를 다그치고있었다.

선원들이 오전작업에 이어 오후작업을 거의 마감할 때였다.

갑자기 바다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점차 물결이 높아졌다.

《작업철수!》

조타실에서 바다를 감시하던 장봉준동무의 지시에 따라 선원들은 재빨리 그물을 걷기 시작하였다.

그물을 걷어올리고 닻을 올리려 하였으나 생각대로 잘되지 않았다.

닻이 너무 깊이 박혀 한동안이 지나서야 닻을 들어올린 배가 출발한 때는 바람이 퍼그나 더 세진 뒤였다.

바람속도는 초당 10여m!

집채같은 파도는 전진하는 배를 당장이라도 집어삼킬듯 길길이 날뛰였다. 배전을 넘는 파도로 하여 어창에 물이 고이기 시작하였다.

《선원들은 물을 풀것!》 하는 선장의 구령소리에 김덕남, 황상준동무들이 사나운 풍랑속에서 결사적으로 물을 퍼내기 시작하였다.

한바께쯔, 두바께쯔…

시간이 흐를수록 날은 어두워지고 선원들은 맥이 점점 진해갔다. 대화기마저 파손되여 앞서 떠난 안강망선 《ㅁ－안－2910》호에도 련락을 할수 없었다.

배가 기울기 시작하였다.

선원들은 한자리에 모이였다. 선원들은 최후를 각오하며 어떤 일이 있어도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초상화를 안전하게 모실것을 한결같이 맹세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초상화를 한점의 습기도 배지 않게 정중히 모신 함은 바다생활경험이 풍부한 부선장 황상준동무의 몸에 든든히 고정되였다.

배에 날리던 공화국기발은 생산부원 장봉준동무가 자기 품에 넣었다.

삶과 죽음을 판가리하는 속에서 그들이 바란것은 오직 하나 우리모두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초상화를 무사히 모시는것이였다.

황상준동무를 중심에 놓고 바줄로 련결한 선원들은 서로서로 어깨를 겯고 평양하늘을 우러렀다.

다음순간 세찬 파도가 안강망선 《ㅁ－안－2909》호를 집어삼키였다. 그들은 검푸른 바다속에 휘뿌려졌다.

사위는 칠칠암흑, 바다물속에 잠겼다 솟구치기를 그 몇번, 맥을 놓아서는 안된다고, 살아도 죽어도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초상화를 안전하게 모시고 기어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웨치는 장봉준, 홍순필동무들의 목소리에 선원들은 또다시 힘을 가다듬으며 한치한치 뭍으로 향하였다.

길길이 날뛰는 바다와 싸우며 그들이 외진 섬에 오른것은 그로부터 몇시간후였다.

조합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애타게 기다리던 장봉준, 홍순필, 김덕남, 장혁철, 황상준, 백금철, 박명수동무들을 찾은것은 다음날 통매도와 가까운 어느 한 섬에서였다.

《다들 무사했구만.》

관리위원장의 얼굴에도, 선원들의 얼굴에도 뜨거운것이 흘러내렸다.

그들 한사람한사람을 뜨겁게 포옹하던 림명길, 김철웅동무를 비롯한 조합일군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초상화를 안전하게 모신 긍지감으로 미소를 짓는 선원들을 바라보며 눈굽을 적시였다.

평범한 나날에 수령결사옹위의 신념을 실천으로 보여준 그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와 만난 구월수산협동조합 일군들인 림명길, 김철웅동무들은 그들은 평상시에 하나와 같이 자기 일에 성실한 량심의 인간, 협동조합이 자랑하는 혁신자들이였다고 말하였다.

지난해 협동조합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실을 더 훌륭히 꾸리기 위한 사업이 진행될 때에도 그들은 수십리 먼 길을 다녀오면서 귀한 꽃뿌리와 꽃씨를 얻어다 화단을 정성껏 만들었으며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영원토록 높이 모시는 사업에도 지성을 다하였다.

언제인가 배수리전투의 나날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선장 홍순필동무는 몹시 불편한 몸이였다.

집에서 치료를 받으라고 선원들이 막아나섰으나 그는 전투장으로 달려나왔다.

며칠동안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배수리전투를 지휘하는 그를 보며 선원들이 받은 감동은 얼마나 컸던가.

《로동신문》에 모셔진 경애하는 원수님의 환하신 영상을 우러르며 원수님께서 자기 고향땅에도 오시였댔다고, 어서 빨리 물고기대풍을 마련하여 원수님께 기쁨을 드리자고 힘과 용기를 안겨주군 하던 김덕남동무는 선원들모두가 진심으로 따르는 당세포비서이다.

앞선 어로방법을 습득할 때에도, 고기배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이 진행될 때에도 이들모두의 가슴마다에 끓어넘친것은 당정책결사관철, 이 생각뿐이였다.

무슨 일을 하나 하고 한가지 사색을 해도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생각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충정과 보답의 자욱을 뚜렷이 새겨온 이들이야말로 참으로 소박하고 진실한 인간들이다.

본사기자 홍 성 철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의 침략적성격은 가리울수 없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조국해방 70돐이 되는 해이자 민족분렬의 70년이 되는 올해가 조선반도에서 평화가 시작되는 해, 조국통일의 돌파구가 열리는 해로 력사에 기록되기를 바라고있다.

우리 공화국은 조선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북남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을 이룩하려는 확고부동한 의지로부터 미국에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조선반도에서 새 전쟁의 위험을 가시고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평화적환경을 마련하려는 우리의 공명정대한 립장은 겨레의 지향과 시대의 요구에 전적으로 부합되는것으로 하여 내외의 한결같은 지지와 공감을 받고있다.

그런데 미당국자들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호응해나올 대신 당치않게도 《위협》이니, 《평화공세》니 뭐니 하는 잡소리를 줴치며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무조건 강행하겠다는것을 공언하여나섰다.

그들은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이 순수 《방어》를 목적으로 한것이며 또 지금까지 《년례적》으로 투명성있게 공개적으로 진행되였다는 케케묵은 주장을 들고나오고있다. 한마디로 합동군사연습이 《북조선의 위협》을 막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거리로도 될수 없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황당하기 그지없는 주장이다.

미국은 의도적으로 진실을 외곡하고있다. 조선분렬의 장본인도 미국이며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격화시키는 장본인도 다름아닌 미국이라는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만일 미국이 남조선을 강점하지 않았다면 우리 겨레가 민족분렬의 쓰라린 고통과 불행을 강요당하지 않았을것이며 미국이 장장 반세기가 넘는 기간 침략적인 대조선정책을 추구하면서 긴장상태를 격화시키지 않았다면 조선민족은 자체의 힘으로 이미 통일을 이룩하였을것이다.

원래 불순한 목적을 추구하는자들일수록 파렴치하고 권모술수의 능수들인 법이다.

우리에게 《위협의 가해자》라는 감투를 씌워 전쟁연습을 합리화, 정당화하는것은 미국의 상투적수법이다. 력대적으로 미국은 우리 공화국의 평화애호적이고 애국애족적인 자세와 립장을 모독중상하면서 저들의 대조선침략책동을 정당화하여왔다. 지난 조선전쟁발발도 《남침》에 의한것으로 묘사하였고 정전후 지난 수십년간 《남침위협》설을 퍼뜨리며 당장이라도 우리가 남으로 쳐나가기라도 할것처럼 여론을 오도해왔다. 하지만 북으로부터의 《위협》이란 있어본적이 없다. 위협이 있었다면 미국과 남조선으로부터의 위협뿐이였다. 미국이 남조선에서 전쟁연습을 벌려놓을 때마다 조선반도에서는 일촉즉발의 전쟁위험이 조성되고 조선반도평화가 항시적인 위협을 받았다.

미국이 합동군사연습에 《방어적》성격을 부여하며 정당화하는것은 우리 인민과 공정한 국제사회에 대한 기만이며 우롱이다.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은 그 누구의 《위협》을 막기 위한 《방어》연습이 아니라 우리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압살하기 위한 침략전쟁연습이다.

방어는 고유한 의미에서 차지한 계선을 유지, 고수하기 위한 전투행동의 한 형태이다. 이렇게 놓고볼 때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이 방어적성격을 띤것이 아니라는것은 삼척동자에게도 명백하다.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의 전과정은 방어가 아니라 선제타격으로 우리 공화국을 점령하는것으로 일관되여있다. 해마다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에 적용하고있는 각본들자체가 그렇게 되여있다.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는 《작전계획 5027》만 보아도 그것은 남조선과 그 주변지역에 방대한 침략무력을 집결시켜놓고 우리의 공중과 해상, 국경을 봉쇄하는 단계, 우리의 전략적목표들에 대한 타격단계, 북진 및 대규모적인 상륙작전단계, 점령 및 군사적통치체계의 확립단계로 되여있다.

바로 이러한 전쟁각본들을 임의의 시각에 실전에 옮기기 위한 방법을 숙달하기 위한것이 다름아닌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이다. 실지 지금까지의 합동군사연습은 다 우리의 전략적거점들에 대한 정밀타격, 상륙 및 기습작전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여왔다.

지난해에도 미국은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이 절정에 달하였을 때 《평양점령》을 목표로 삼고 최대규모로 되는 《쌍룡》련합상륙훈련을 벌려놓았다.

오늘 지구상에서는 크고작은 군사연습들이 수없이 진행되고있다. 하지만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처럼 최종목표를 다른 나라의 수도점령으로 정해놓고 진행되는것은 없다. 이자체가 미국이 벌려놓는 합동군사연습의 침략적성격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미국이 합동군사연습때마다 남조선의 포항을 가상적인 상륙지점으로 선택하고있는것을 보아도 합동군사연습이 《방어적》이라고 하는 미국의 주장의 기만성을 똑똑히 알수 있다.

포항은 우리의 동해안지대 찍어말하면 원산과 류사한 점이 많다. 더우기 조선동해너머에는 미국이 출격기지로 리용할수 있는 일본이 있다. 미군전투기들이 일본본토에서 우리를 향해 출격하는 경우 남조선의 비행장을 사용하지 않고도 직접 상륙작전을 지원할수 있다. 미국은 이 점을 중시하고있다.

지난 조선전쟁때에도 미국은 포항과 비슷한 원산에 상륙하여 서부로 진격함으로써 우리의 허리를 잘라 인민군부대들에 대한 포위망을 형성하려고 시도하였다. 미국은 이것을 재현해보려 하고있다. 원산을 비롯한 동해안지대에 상륙하여 교두보를 마련하고 그것을 점차 확대하여 넓은 지역을 점령하자는것이 미국의 전략적기도이다. 미국이 포항을 고정적인 상륙훈련지점으로 정한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의 침략적성격은 여기에 동원되는 병력의 규모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나고있다.

해마다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에는 남조선강점 미군은 물론 미국본토와 태평양지역, 일본주둔 미군을 포함한 대병력이 참가하고있다. 그 수는 체계적으로 늘어나고있다. 이것은 조선반도《유사시》 69만명의 미군병력과 2,000대의 전투기를 투입하기로 되여있는 《작전계획 5027》에 따른것이다. 여기에 미국남조선《련합군사령부》에 소속되여있는 남조선군과 준군사무력까지 계산하면 그 수는 실로 방대하다.

일반적으로 서방세력은 공격은 방어하는 력량에 비해 절대적인 우세를 차지할 때만이 가능한것으로 보고있다.

지난 세기 50년대에도 미국은 력량상 확고한 우세를 차지하였다고 장담하고 10여만명의 병력을 내몰아 조선전쟁을 도발하였다. 그때와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미국은 저들의 무장장비가 고도로 현대화되였으며 세계적으로 손꼽히고있다고 자랑하고있다. 이러한것을 제쳐놓더라도 미국이 주장하는것처럼 합동군사연습이 실지 방어를 위해서라면 그렇게 많은 병력이 필요없다.

이전 레간집권시기 국방성에서 병력보충과 예비군, 병참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전 미국방성 차관보 로렌스 코브도 《작전계획 5027》을 론하면서 동원되는 병력이 필요한 수준보다 지나치게 많다고 하였다.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에 참가하는 병력의 구성과 무장장비상태를 보아도 그 침략적성격을 잘 알수 있다.

미3해병기동군을 비롯하여 합동군사연습에 고정적으로 참가하고있는 미군부대들은 모두 해외침략에서 악명을 떨쳐온것들이다.

이 부대들은 공격능력을 최대한 높이는 방향에서 편성되였다. 지난 조선전쟁때 우리에 대한 공격작전에서 앞장에 섰고 전쟁연습에서도 선견대적역할을 하는 미2사만 놓고보아도 그렇다. 이 사단에는 보병, 포병, 정찰, 항공, 정보통신 등 모든 병종이 다 있다. 무인정찰기와 다목적전투기, 고속수송선, 최신예땅크도 장비하고있다. 미군부당국자들은 미2사가 원거리 및 륙지와 해상, 공중전투능력과 정밀타격능력을 다 갖춘 최첨단사단이라고 내놓고 자랑하고있다. 이런 부대에 미국은 지뢰해제를 사명으로 하는 지뢰방호특수차까지 배치하였다. 북침을 위한것이라고밖에 달리 평가할수 없다.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에 투입되군 하는 지상, 해상, 공중타격수단들, 첨단무장장비들은 이 전쟁연습의 침략적성격을 더욱 부각시켜주고있다.

미국은 합동군사연습때마다 공중전위주의 침략전쟁방식에 따라 전략폭격기 《B-52》, 《B-2A》, 스텔스전투기 《F-22》를 비롯한 각종 타격비행대들을 들이밀고있다.

여기에서 《F-22》스텔스전투기의 작전반경은 2,000㎞가 넘으며 《B-52》폭격기는 6,400㎞이상의 거리를 날아가 폭탄을 투하할수 있다. 이러한것들이 순수 방어를 위해 날아든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미국이 남조선주변수역에 기동전개시키군 하는 항공모함이나 핵잠수함도 방어가 아니라 공격을 위한것이다. 미군부호전광들도 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이 《북의 핵심전략시설들을 타격》하기 위한것이라고 공언하고있다.

언제인가 외국의 한 신문은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으로 가상해본 〈제2차 조선전쟁〉》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에서 주되는 역할을 하게 될 항공모함전투집단은 만일 전쟁이 일어난다면 해안선으로부터 수백㎞ 떨어진 곳에서 순항미싸일과 함재기들로 조선의 중심부에 1차타격을 가할것이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 괌도주둔 미군의 새로운 폭격이 시작되며 미군정보기관들이 사전에 지정해준 조선의 군수공업시설들과 지휘소가 자리잡고있을만 한 지역들에 련이어 폭격을 가할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 이것은 미국의 항공모함이 북침전쟁도발에서 놀게 될 역할과 그것이 참가하는 합동군사연습의 위험성과 침략적성격을 명확히 밝힌것이다.

스쳐지날수 없는것은 미국이 우리 공화국을 최우선적인 핵공격대상으로 지정한 《핵태세검토보고서》에 따라 핵선제공격을 예견한 훈련을 뻔질나게 벌리는것이다. 최근년간에 와서 그것은 극히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다.

지난 2013년에도 괌도에 전개되여있는 전략폭격기 《B-52》편대를 남조선지역 상공에 불시에 들이밀어 우리의 종심대상물들을 가상한 실전핵타격연습을 강도높게 벌리면서 그것을 내놓고 공개하였다. 지난해에는 합동군사연습에 우리에 대한 핵선제타격을 노린 《맞춤형억제전략》을 처음으로 적용하였다.

모든것이 명백하다.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은 방어를 위한것이 아니라 우리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침략을 노린 도발행위이다.

그것이 《년례적》이고 《방어》연습이기때문에 문제시될것이 없다는 미국의 주장은 강도질도 공개적으로 해마다 하면 정당한것으로 되고 남의 집에 뛰여든 강도가 칼을 휘두르는것도 자체방위를 위한것으로 된다는 식의 파렴치한 궤변이다.

미국은 이미 4개년국방전략검토보고서에서 우리를 《최대의 적수》로 규정하고 무력제압을 통해 《결정적인 승리를 이룩한다.》는것을 선포한 상태이다. 미국은 《방어》라는 간판밑에 전쟁연습을 계단식으로 확대하다가 불의의 선제공격으로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려 하고있다.

조선반도에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긴박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오바마 미행정부가 우리의 《제도붕괴》를 로골적으로 떠들어대고 고립압살의 도수를 보다 강화하겠다고 광기를 부리면서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으려 하는것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침략야망이 절대로 변하지 않았으며 보다 위험천만한 단계에 들어섰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미국이 우리의 제도전복을 노린 《작전계획 5027》을 비롯한 침략전쟁각본들을 실천에 옮기겠다는것을 명백히 한 이상 미국을 상대로 더는 마주앉을 필요도 없고 상종할 용의도 없다는것이 우리의 원칙적립장이다. 칼을 들고 달려드는 강도에게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

대화나 외교적해결의 기회는 이미 사라졌다. 남은것은 전쟁억제력을 최대로 강화하면서 군사적으로 대응하는것뿐이다.

우리는 믿음직한 방어수단뿐아니라 우리를 해치려 달려드는 적의 본거지를 순간에 불마당질해버릴수 있는 강력한 전쟁억제력을 가지고있다.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려는 미국과는 언제든지 한번 맞서 싸워야 하며 또 싸우면 반드시 승리한다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이며 의지이다.

우리는 미국과 한두번만 맞서보지 않았다. 1950년대부터 계속되여온 조미대결에서 우리는 언제나 승리에 승리만을 거듭하여왔고 미국은 언제나 패배의 쓴맛을 보았다. 이러한 전통은 오늘도 래일도 계속될것이다. 만약 미제가 력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또다시 침략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쌓이고쌓인 분노와 적개심을 총폭발시켜 그리고 수십년동안 다지고다져온 모든 군사적위력을 총동원하여 침략의 아성을 재가루도 남지 않게 죽탕쳐버릴것이다. 그때에 가서 아무리 후회해야 때늦은것으로 될것이다. 미국은 우리의 이 경고를 무심히 듣지 말아야 한다.

리 학 남

대화방해군들의 뻔뻔스러운 말장난

북남관계가 파국에로 치닫고있는 지금 남조선당국자들이 그에 대해 책임을 느끼기는커녕 오히려 우리를 걸고들며 잔꾀를 부리고있다. 피뢰통일부 장판 류길재는 퇴임을 앞둔 기자회견이라는데 나타나 저들이 《대화를 위해 노력》했다느니, 《기대했던 성과를 내지 못해 아쉽다.》느니 뭐니 하면서 마치도 대화가 열리지 못하고있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듯이 허튼 나발을 불어댔다. 그로부터 며칠후에는 그 무슨 《격려사》라는것을 하면서 《북이 대화에 응하지 않고》있다고 우리를 또다시 시비질하였다. 한편 피뢰통일부 대변인이라는자도 《대화제의에 호응》해나오라느니, 《책임있는 태도》를 보이라느니 하고 주제넘게 삿대질까지 하였다.

그야말로 뻔뻔스러움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도적이 매를 든다더니 감히 누구앞에서 《대화》니, 《호응》이니 하고 헌수작질인가. 우리의 대범한 북남관계개선노력에 한사코 도전하면서 친미사대와 반공화국대결책동에 피눈이 되여 날뛰는 장본인이 남조선당국자들이 아니란 말인가.

알려진바와 같이 우리는 뜻깊은 올해에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북남관계에서의 대전환, 대변혁을 안아오고 자주통일의 대문을 열기 위해 남조선당국에 미국과 함께 벌리는 모든 전쟁책동을 중지하고 《제도통일》을 추구하지 말것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피뢰패당은 그 무슨 《전제조건》이니 뭐니 하고 우리의 정당한 제안을 헐뜯으면서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에 더욱 발광적으로 매달리고있는가 하면 구태의연하게도 삐라살포가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는 억지주장을 펴며 상전과 야합하여 반공화국도발소동에 열을 올리였다. 나중에는 피뢰집권자까지 나서서 《인권》이 어쩌니저쩌니 하며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악의에 차서 비방중상하고 《개혁, 개방》따위를 떠벌이며 《북붕괴》야망에 사로잡힌 상전의 망동을 그대로 되풀이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 긴장이 걷잡을수 없이 격화되고있는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우리의 제안은 그 어떤 《전제조건》인것이 아니라 민족의 운명을 위기에서 구원하고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한것이다. 이것을 거부하는것은 결국 남조선피뢰들이 대화에 전혀 관심이 없으며 그들의 골수에 꽉 들어찬것은 반공화국고립압살에 환장한 미국에 추종하여 동족을 해칠 흉계뿐이라는것을 명백히 말해주고있다.

족제비도 낯짝이 있다는데 대화와 북남관계개선을 위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이 오로지 동족대결에만 눈이 벌개 돌아친자들이 파렴치하게도 그 무슨 《대화》와 《호응》을 운운하고있으니 어찌 격분하지 않을수 있겠는가.

남조선당국이 동족을 해치기 위한 전쟁책동과 체제대결소동으로 대화를 가로막고도 아닌 보살을 하며 우리를 걸고드는것은 절대로 묵과할수 없다. 그것은 내외여론을 오도하여 북남대화가 열리지 못하는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기기 위한 서푼짜리 기만극이며 저들의 범죄적인 대결기도를 가리우기 위한 교활한 말장난이다. 그따위 오그랑수로 저들에게로 쏠리는 비난과 규탄여론을 모면할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다.

남조선피뢰들이 외세와 작당하며 동족과 대결하는 못된 악습을 버리지 않는다면 언제 가도 북남관계의 파국을 해소할수 없다.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북남사이의 대화와 관계개선을 바란다면 상대방을 우롱, 모독하며 북남관계파국의 책임을 모면할 놀음만 벌릴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반공화국대결정책을 철회하고 대화실현을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온 겨레가 남조선당국의 태도를 예리하게 주시하고있다.

은 정 철

극단주의와의 투쟁을 강화할것을 호소

따쥐끼스딴대통령 에모말리 라흐몬이 17일 한 회의에서 연설하면서 테로와 극단주의와의 투쟁을 강화할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나라에서 극단주의적인 경향이 우심해지고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오늘날 테로와 종교적극단주의는 전세계적인 위협으로 되고있다고 말하였다.

특히 무력기관들은 젊은 사람들이 각이한 형태의 테로와 극단주의적행위에 말려들지 않도록 교양사업을 잘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국제안전체계를 강화할데 대해 언급

까자흐스딴대통령 누르쑬딴 나자르바예브가 17일 한 상봉석상에서 국제안전체계를 강화할데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현 조건에서 모든 국가들이 국제협약과 협정에 따르는 자기의 의무를 준수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였다.

까자흐스딴은 평등과 호혜의 립장을 유지하고 국제법을 존중할것을 주장한다고 강조하고 그는 분쟁의 근원이 확대되고있는 조건에서 국제안전체계를 강화하는것은 절실히 필요한 문제로 나선다고 언명하였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납입시도 배격

슬로벤스꼬수상 로베르뜨 피쪼가 얼마전 한 회의에서 연설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무기납입을 반대하는 자기 나라의 립장을 밝혔다.

그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납입이 긴장을 격화시키고 동유럽에서 장기적인 분쟁을 초래하게 될것이라고 말하였다.

슬로벤스꼬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납입하려는 시도를 배격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동아프리카나라들에서 식량위기

동아프리카의 케니아,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남부수단, 수단 등 6개 나라들에서 식량위기를 겪고있다.

13일 유엔은 이 나라들에서 1월에 식량위기에 처한 주민수가 1 140만명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영웅들의 위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언명

로씨야외무성 부상 와씰리 네벤쟈가 얼마전 한 의식에서 위대한 조국전쟁시기 영웅들의 위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언명하였다.

그는 로씨야는 위대한 조국전쟁의 력사를 외곡하고 영웅들과 배신자들의 이름을 바꾸어놓으며 파쑈분자들로부터 세계를 해방한 붉은군대의 명예를 떨어뜨리려는 시도들을 용납할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선렬들의 위훈을 영원히 기억하고 위대한 조국전쟁의 영웅적시기에 대한 력사적진실을 고수해야 한다고 하면서 오늘의 정세는 어렵지만 모두가 선렬들을 따라배워 조국을 위해 충직하게 복무하며 국제무대에서 나라의 리익을 수호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제 곧 위대한 승리 70돐을 맞이하게 된다고 하면서 그는 이 승리는 굳게 단합된 로씨야인민에게 있어서 뗄수 없는 부분으로 되였다고 말하였다.

‖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

여권 나라들 협조

인디아와 스리랑카가 16일 경제, 문화, 안전, 핵에네르기리용 등 분야에서 쌍무협조를 발전시켜나가기로 합의하였다.

같은 날 끼쁘로스와 에짚트는 천연가스개발사업에서 협조할데 관한 량해각서에 조인하였다.

국내총생산 장성

인도네시아에서 지난해 국내총생산이 5.02% 장성하였다.

최근 이 나라 대통령이 밝혔다.

위생환경개선노력

케니아정부가 최근 나라의 위생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수도의 주민지구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데 기초하여 어지러운 곳들을 정리하는 사업을 강화하였다.

또한 위생사업과 함께 문화후생시설들과 보건시설들을 꾸려놓아 주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하였다.

정부는 앞으로 전국적범위에서 위생환경보장사업을 강화하여 주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청년들의 일자리문제도 해결해나갈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인디아에서 차잎따기

로씨야에서 월드컵경기대회준비 추진

로씨야에서 2018년 국제축구련맹 월드컵경기대회 주최를 위한 준비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있다.

대회의 성과적보장을 위해 나라에서는 12개의 경기장을 새로 건설할 목표를 내세웠다.

지금 로스또브주에 건설되는 경기장은 가장 어려운 대상들중 하나로서 건설자들은 -15℃의 추위속에서 작업을 진행하고있다.

정부에서 경기대회준비사업에 많은 자금을 할당하였다 한다.

제27차 겨울철세계대학생 체육경기대회 폐막

제27차 겨울철세계대학생체육경기대회가 14일 에스빠냐에서 폐막되였다.

이번 대회 최종메달획득순위에서는 로씨야팀이 금메달 20개, 은메달 18개, 동메달 18개를 쟁취하여 1위를 하였다. 이로써 로씨야팀은 지금까지의 겨울철세계대학생체육경기대회에서 제일 많은 금메달을 획득한 팀으로 되였다.

폐막식은 에스빠냐와 까자흐스딴예술인들이 출연하는 문화행사로 막을 내렸다. 폐막식이 끝난 후 국제대학생체육련맹기발이 2017년대회주최국인 까자흐스딴에 넘겨졌다.

반 미 시 위

뜌니지의 뜌니스에서 최근 반미시위가 벌어졌다.

미국의 노스 캐롤라이나주에서 이슬람교도대학생들이 총에 맞아 무참히 살해된것과 관련하여 일어난 시위에는 많은 각계층 군중이 참가하였다.

시위참가자들은 미국보도수단들이 국내에서 벌어진 이슬람교도살인사건에 대해 함구무언하고있다고 하면서 이것은 전세계 이슬람교도들에 대한 모독행위라고 단죄하였다.

그들은 또한 미국에서의 이슬람교도살인만행에 침묵을 지키고있는 서방의 편견적인 처사를 신랄히 비난하였다.

미국의 살인무기판매책동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 무인기들을 팔아먹으려고 책동하고있다.

최근 AP통신은 미행정부가 군용무인기수출을 허용하도록 규정들을 수정하려 하고있다고 폭로하였다.

이미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예멘 등지에서 살인무기로 악명을 떨친 무인기를 팔아먹으려는 미국의 책동은 국제사회의 비난을 자아내고있다.

경 제 침 체

일본의 도쬬와 그 주변의 3개 현들에서 올해 1월에 살림집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8.1% 감소되였다.

또한 미국의 원유생산업체인 아파치회사에서는 지난해 4.4분기에 초래된 리윤손실액이 48억US$에 달하였다.

한편 영국의 롤즈 로이스회사에서는 지난해에 리윤이 그 전해보다 8% 줄어들었다 한다.

【조선중앙통신】

북남관계개선의 앞길을 막아나선 미국의 죄악(6)

북남대화와 평화파괴의 원흉

1980년 우리 공화국은 조국통일을 바라는 온 민족의 절절한 념원을 반영하여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제시하였다.

북과 남에 있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하나의 련방국가를 창립할데 대한 이 방안은 북과 남의 구체적현실로부터 출발한 가장 합리적이며 공명정대한 통일강령이다. 여기에는 민족의 리익, 민족적자주권을 무엇보다도 귀중히 여기고 온 겨레가 하루빨리 통일된 조국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려는 숭고한 애국애족의 뜻이 구현되여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발표되자마자 내외의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이야말로 가장 공명정대하고 현실적인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이라고 하면서 적극적인 지지와 공감을 표시하였다.

지어 남조선의 보수층속에서도 조국통일문제를 가장 빨리 해결할수 있는 최선의 방도라는 찬사의 목소리들이 울려나왔다. 온 겨레가 통일열망으로 들끓었다.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미국은 침략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려 조선반도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는것으로 뜨겁게 달아오른 민족의 통일열망에 찬물을 끼얹었다.

1980년대초 미집권자와 1 000여명의 핵전쟁광신자들은 우리 공화국의 전지역을 일시에 타격하는것을 가상한 핵전쟁도상지휘연습까지 벌려놓고 그것을 그대로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에 적용하면서 계단식으로 확대하였다.

1983년에 그 규모는 사상 최대로 되였다. 여기에는 남조선강점 미군은 물론 미국본토와 태평양지역, 일본과 필리핀주둔 미군무력까지 투입되였다. 남조선과 그 주변지역에서는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종합적이며 립체적인 침략전쟁연습이 미친듯이 벌어졌다. 미국은 핵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호, 《미드웨이》호까지 끌어다놓고 핵선제타격훈련을 벌려놓았다.

문제는 미국이 벌려놓은 합동군사연습이 단순히 연습을 위한것이 아니라는것이였다. 미국은 전쟁연습을 그대로 실전으로 옮겨놓으려고 책동하였다. 조선반도에는 언제 핵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사태가 조성되였다.

조성된 엄혹한 정세에 대처하여 우리 공화국은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수호하기 위한 자위적조치로 준전시상태를 선포하지 않을수 없었다.

우리의 남녘땅을 강점하고 사회주의조국을 침범하려는 미국과의 전면대결전에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이 산악같이 일떠섰다. 우리 군대와 인민의 서슬푸른 기상앞에 미국은 수그러들고 말았다.

하지만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고 전조선을 지배하려는 야망을 버리지 않았다. 미국은 그후에도 전쟁연습소동을 벌려놓고 우리에 대한 도발을 일삼았다.

우리는 북남관계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였다. 미국이 우리를 심히 자극하는 행동을 할 때에도 강한 자제력을 발휘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이 고통을 겪을 때에는 뜨거운 동포애의 정을 가지고 사심없는 지원을 주었다.

1984년 서울을 비롯한 남조선의 여러 지역에서는 무더기로 큰물이 나고 수많은 사상자와 리재민이 발생하였다.

우리는 겨레의 불행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고 남조선수재민들에게 쌀 5만석, 천 50만m, 세멘트 10만t과 의약품들을 구호물자로 보내주었다. 하여 민족분단 39년만에 처음으로 동포형제들끼리 막대한 량의 구호물자를 주고받는 력사적사변이 마련되였다.

이것을 계기로 악화되였던 북남관계가 개선될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였다.

이에 심사가 뒤틀린 미국은 모처럼 마련된 북남대화의 분위기를 또다시 흐려놓는 망동을 서슴지 않았다.

당시 남조선주재 미국대사였던 워커는 《북남대화에 대한 지나친 기대는 금물》이라고 떠벌이였다.

미국은 실지행동으로 자기의 고약한 심보를 드러내놓았다. 북남사이의 경제회담이 열린지 며칠후에 판문점 회의장구역안에서 수백발의 총탄과 투척기탄을 쏘아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하던 우리측 경무원 3명을 야수적으로 살해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히는 극히 엄중한 군사적도발을 일으켜 북남관계개선의 앞길에 엄중한 난관을 조성하였다.

1985년 우리 공화국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하여 북과 남사이의 적십자회담이 다시 열리고 북남사이에 처음으로 적십자예술단과 고향방문단이 서로 오가게 되는 등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되자 미국은 또다시 극히 도발적인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함으로써 대화를 끝내 중단상태에 몰아넣었다. 이것도 성차지 않아 미국은 전쟁연습의 포연이 채 가셔지기도 전에 《년례안보협의회》라는것을 벌려놓고 전쟁모의를 하였다. 여기에서 미국은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계속 감행할것이라는것을 선포하고 년년이 전쟁연습을 발광적으로 벌리였다.

이로 하여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좋게 출발한 북남대화와 화해의 분위기는 가뭇없이 사라지고 조선반도정세는 날로 더욱 악화되였다.

제반 사실은 미국이야말로 력대적으로 북남관계개선과 통일을 가로막아나선 우리 민족의 철천지원쑤라는것을 확증해주고있다.

김 수 진

ㄱ-510310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취급승인 제3호) 전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